

기아차 판매부진에 파업까지

metro®

메트로 2015년 9월 16일 수요일 제3302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15일>

코스피	1937.56	(+6.10)
코스닥	666.75	(+3.87)
금리(국고채 3년)	1.67	(+0.01)
환율(원·달러)	1186.70	(+4.20)



전기차 후진국 전락한 한국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첨단전기차 각축전

아우디 신형 15분 충전에 500km 주행
국산 전기차 30분 충전에 최대 148km
현대자동차는 아직 전기차 모델도 없어

글로벌 전기자동차 시장이 급속도로 진화하고 있다.

아우디는 1회 충전에 500km 이상을 가는 차량을 개발했다. 반면 한국 전기차는 1회 충전 후 갈 수 있는 거리가 100여km 안팎에 불과하다. 부산-서울 간 왕복도 안된다. 휘발유·경유 차보다 주행가능 거리가 훨씬 짧은데다 충전시설도 찾기 어려워 외면 받고 있다.

전기차 시장의 글로벌 리더인 폭스바겐그룹은 주행 거리가 길고 배터리 충전이 아주 빠른 자율주행 전기차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폭스바겐의 고급 브랜드 아우디는 14일 오후 7시 30분(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프라포트아레나에서 신차발표회**(사진)**를 열었다.

마틴 빈터콘 폭스바겐그룹 회장은 순수전기차(EV)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에 집중한다는 비전을 밝혔다.

아우디가 내놓은 전기차 SUV 'e-트론 콰트로'의 배터리 완충에 걸리는 시간은 단 15분, 가능한 주행 거리는 500km 이상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빈터콘 회장은 "2020년까지 EV와 PHEV 모델 20종 이상을 개발해 출시할 것"이라는 비전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빈터콘 회장은 그룹 산하 아우디, 벤틀리, 포르쉐, 람보르기니, 부가티, 스코다, 세아트, 스카니아, 만, 두카티 등 브랜드의 신차를 차례로 공개했다.

이날 폭스바겐이 소개한 차세대 자동차의 모습은 이미 무인차의 모습과 유사하다. 운전자가 집이나 회사 등 목적지에 내리면 스스로 주행해 주차장을 향한다. 가는 길에 만나는 보행자나 위험요소 등을 각종 센서와 카메라로 감지해 능동적으로 피해간다.

폭스바겐이 '브이차지'(V-charge)라 이름 붙인 기술은 주차장이 곧 충전소인 개념이다.

차가 무인주행으로 주차공간에 주차하면 그 자리에서 급속 충전이 이뤄진다.

주인이 업무를 마치고 나오면 내렸던 그 자리로 되돌아온다.

이날 폭스바겐그룹이 선보인 모델들은 현재 기술을 발전시킨 신형 모델과 차세대 기술을 접목시킨 콘셉트카가 대조됐다.

폭스바겐그룹은 폭스바겐 승용차와 상용차, 아우디, 벤틀리, 포르쉐, 람보르기니, 부가티, 스코다, 세아트, 스카니아, 만, 두카티 등 총 12개의 자동차·모터사이클 브랜드를 산하에 두고 있다.

기존 차량의 신형 모델로는 세아트 레온 크로스스포츠, 벤틀리 벤테이가, 람보르기니 우라칸 LP610-4 스파이더, 폭스바겐 멀티밴 팬아메리카 에디션, 아우디 콰트로 시리즈, 스코다 슈퍼브 콤비, 티구안 R라인, 포르쉐 911 카레라 S 쿠페와 카브리올레 등을 선보였다.

글로벌 업체들이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한국 전기차 시장은 잰걸음을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순수전기차 판매 모델이 없다. 기아자동차의 쏘울 EV가 국내시장에서 선두권을 차지하고 있다. 기아차의 '올 뉴 쏘울'을 기반으로 개발한 전기차다. 1회 충전에 최대 주행거리는 148km라고 하고있다.

급속 충전 시 24~33분, 완속 충전 시 4시간 20분만에 충전이 가능하다.

한편 지난달 말 국제협력기구 전기차 이니셔티브(EVI)의 '2015년 세계 전기차 보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글로벌 전기차 누적 등록대수는 총 66만5000여대로 전체 승용차 등록대수의 0.08%를 차지했다.

국내에 보급된 전기차 대수는 올 상반기까지 총 3867대로 이는 전세계 전기차 보급대수의 0.45% 수준이다.

/프랑크푸르트(독일)=이정필 기자 roman@

안방도 외제 차에 내줄판
서울시민 신청 BMWi3 1위

국내 전기자동차(EV) 시장에서도 수입차 전성시대가 머지않을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1~6월) 국내 시장에서 BMW i3가 돌풍을 일으키며 기아자동차 쏘울 EV를 위협하고 있다. 맏형 현대차는 전기차 개발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6월 진행한 '2015년도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 공모'에서 BMW i3 신청자 수가 424명을 기록해 전체의 절반(51.6%)가량을 차지했다.

기아차 쏘울 EV가 올해 상반기 497대 판매돼 1위를 기록했지만 수입 전기차인 BMW i3가 민간보급 사업 공모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1위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BMW i3는 올해 상반기 129대 판매돼 르노삼성자동차 SM3 Z.E.(259대)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이어 기아차 레이 EV는 60대, 닛산 리프는 45대, 한국지엠 스파크 EV는 44대를 기록했다.

업계는 현대·기아차가 전기차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필수 한국전기자동차리더스협회장은 "기존 기아차 쏘울EV · 레이EV 등은 개조형 전기차이기 때문에 전용 플랫폼을 갖춘 전기차 완성차 양산이 필요하다"며 "기존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를 비롯해 대기업들은 LG, 삼성도 전기차를 생산할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문승일 기초전력연구원장(서울대 공과대 교수)은 7월 열린 전기차리더스포럼에서 "기아차 쏘울 EV를 타봤는데 이는 기존 차를 개조한 수준"이라며 "대한민국은 아직 전기차를 못 만드는 국가"라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2020년 친환경차 중장기 로드맵'을 통해 2020년까지 하이브리드(HEV·내연기관차+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FCEV) 등 다양한 라인업의 친환경차를 구축할 계획을 밝혀 전기차 생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용기 기자 yonggi@metroseoul.co.kr

Jaeyoung Lee and Wansun Hong, why did they meet up?

이재용 홍완선 왜 만났나



이재용 홍완선

It was claimed by the inspection of the administration that National pension corporation's decision on investment is going back and forth. It is said that the inspection of the administration kept playing it by ear without any rational principles when it comes to making decisions about a merge of SK, Samsung C&T and Cheil Industries and Homeplus.

Kisik Kim, in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said "National pension corporation held an investment committee meeting and decided to go with.

concerns over the voting process around the merger saying "National pension corporation proceeded the voting for Samsung's merger in a different way from SK".

In fact, the National pension cooperation raised an objection against the merger of SK and SKC&C in April.

However, the corporation agreed with the proposed takeover of Samsung C&T and Cheil Industries in July.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determined to favor the idea of proposed merger between the two companies when the controversy was growing bigger. In response, Samsung Group has been defensive claiming that the company needs to protect its own management right from foreign investments.

국민연금의 투자결정이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과정에서 제기됐다. SK 합병이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합병, 홈플러스 인수참여 등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합리적 원칙이나 기준도 없이 임기응변으로 결정해 왔다는 것이다.

14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기식(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국민연금이 SK합병에서는 전문위원회를 통해 반대의견을 내놨으면서도 삼성물산 합병에서는 투자위원회를 열어 찬성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지난 4월 SK와 SKC&C의 합병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지난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안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던졌다. 국민연금공단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 즈음인 7월10일 합병에 찬성한다는 방침을 일찌감치 정했다. 이에 대해 삼성측은 해외투기자본으로부터 국내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해야 한다는 논리로 방어해 왔다.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국제

▲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공격으로 '표현의 자유'의 상징이 됐던 프랑스의 시사주간지 **샤를리 엡도**가 이번에는 금도를 넘어 궁지에 몰리게 됐다. 샤를리 엡도는 최근 터키 해변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세살배기 시리아 난민꼬마 아일란 쿠르디를 조롱하는 만평을 실었다.

▲ **애플**이 오는 25일 출시되는 새 아이폰의 첫 주말 판매량이 작년의 1000만대 기록을 깰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중국에서의 선풍적인 인기가 결정적인 이유로 꼽히고 있다.

▲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발생해 주 당국이 산불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0월 말 또는11월 초로 예정된 한·중·일 3개국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치

▲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사한 데 이어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제4차 핵실험까지 암시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남북은 합의대로 이산가족 생사확인 명단을 교환하며 상봉 절차를 밟고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은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자 한국노총 지도부를 비롯한 노사 지도부에 감사를 표하고, 쉬운 해고로 악용되는 일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 행정부와 사법부에 재직 중인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아들 중 18명이 한국 국적을 버리고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논란과 관련해 "변칙적이고 편법적인 상속이 이루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은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심지어 상당수의 언론도 광고 카르텔에 묶여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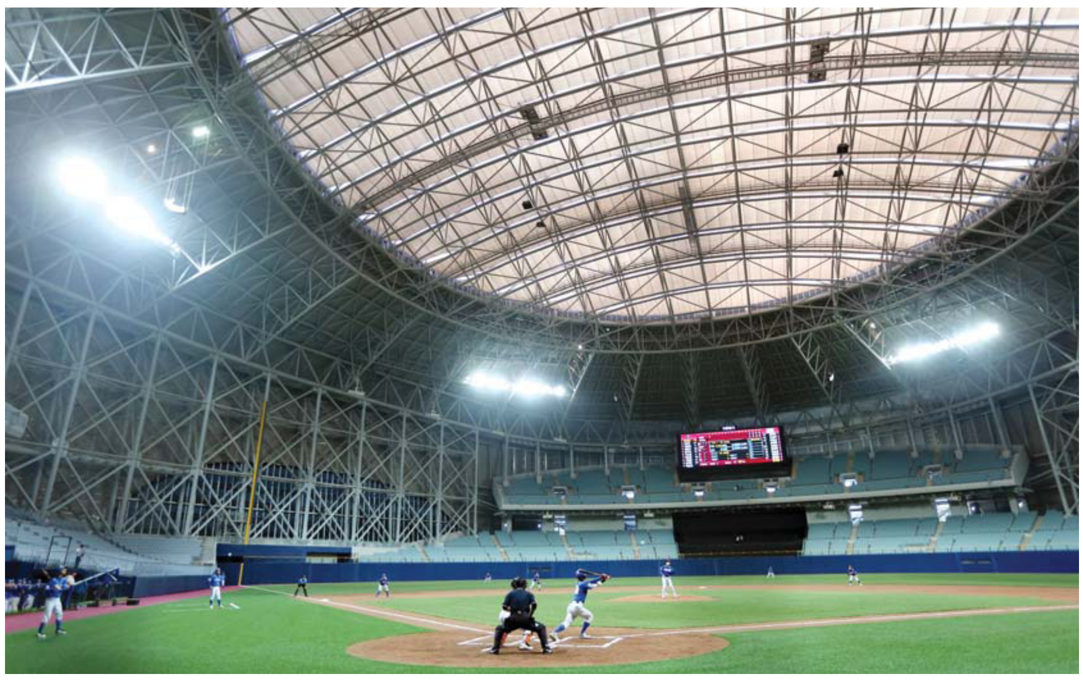
▲ 앞으로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우편과 인터넷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정부**가 론스타의 국제중재 청구 내용을 비공개한 데 이어 아랍에미리트의 만수르 소유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국제중재 청구액에 대해서도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 최근 3년간 **고소·고발**로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넘어간 국민이 7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체육계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5일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2~3곳을 압수수색해 국가보조금 지급·집행 내역을 확보했다.

▲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익산갑·법사위)이 15일 대전에서 열린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검찰청 및 산하 지법·지검 국정감사에서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에 대한 재심과 재수사를 촉구했다.



고척스카이돔서 첫 시범경기 15일 오후 국내 첫 돔야구장 '고척스카이돔'에서 여자야구 국가대표팀과 서울대 야구부가 시범경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경제

▲  삼성전자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삼성페이**의 성공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애플페이' '안드로이드페이' 등과의 본격적인 경쟁에서 승리할 경우 삼성전자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삼성그룹**이 15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1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지난 1년 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창조경제의 지속적인 추진과 성과 창출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는 시간을 가졌다. 향후 삼성은 창조경제혁신 모델 브라질 수출·선순환 벤처 생태계 정착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 글로벌 완성차업체를 선도하는 **폭스바겐**은 주행거리가 길고 배터리 충전이 아주 빠른 자율주행 전기차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폭스바겐이 제시한 전기차 모델은 한 번 완충에 걸리는 시간이 단 15분, 한 번 완충으로 가능한 주행 거리는 500km 이상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의 파업이 가시화되면서 15일 출시된 신형 스포티지 신차효과에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기아차는 신형 스포티지로 올해 부진한 판매량을 벗어나야 하는 상황에서 노조 리스크로 4년 연속 파업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생겼다.

▲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한국은 S&P와 무디스, 피치 등 3대 국제 신용평가기관에서 사상 처음으로 AA- 등급을 받게돼 평균 신용등급이 일본, 중국보다 높아졌다.

▲ 지난해 대규모 정보유출사고를 일으킨 국민·롯데·농협카드 등 **카드 3사**가 무료문자 알림서비스를 슬그머니 유료로 전환해 수십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 서울 서초구 **반포동**이 20억원 이상 아파트 시가 총액에서 전국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최고의 부촌으로 올라섰다. 상반기(1~7월) 서울시의 동 별 20억원 이상 아파트 시가총액에서 서초구 반포동은 2208억85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朴 "한국노총에 감사… 쉬운 해고 막겠다"

한국노총에 감사 인사
국회에 조속한 입법 촉구
기업에 청년채용 강조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제89차 본위원회가 열렸다. 최영기(왼쪽부터)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 위원장, 김정숙 세계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태기 단국대 교수가 노사정 합의문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가 15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한국노총 지도부를 비롯한 노사 지도부에 감사를 표하고, 쉬운 해고로 악용되는 일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시대적 소명에 부응해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노사 지도자들, 특히 한국노총 지도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며 "노동자 여러분의 고뇌에 찬 결단이 결코 희생을 강요하고 쉬운 해고를 강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이후 17년 만에 성사가 된 사회적 대타협이다. 이번 대타협은 저성장과 고용창출력 저하라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로써 우리 사회의 갈등을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귀중한 사회적 신뢰자산을 쌓을 수 있게 됐다. 노동자 여러분의 이번 결단으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경기가 활성화돼 그 성과를 다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어려운 대타협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서 저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들과 사회 지도층, 그리고 각계 여러분이 앞장서서 서로 나누면서 청년 고용을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 청년 고용을 위한 재원 마련에 저부터 단초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날 한국노총이 기본 방향만을 담은 합의안을 최종 승인하면서 공은 입법을 통해 구체적인 개혁안을 내놓아야 하는 국회로 넘어갔다.

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정부는 노사정 합의 내용을 토대로 필요한 입법과 행정조치를 서둘러달라. 노동개혁 관련 5대 입법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가 돼서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전성이 높아져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가 조금 더 빨리 생겨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상생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회에서의 조속한 법률 통과가 필요하다. 이념을 떠나고 당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노동개혁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상생의 시대를 만드는 데 동참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들을 향해서는 "임금피크제로 절감된 인건비를 반드시 청년채용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말고 신규투자와 추가 고용을 통해 노동개혁이 실질적으로 일자리와 경제활성화에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민주노총, 총파업 예고… 한노총 일부 동조

파업 돌입, 추석 전 결정할 것



1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노동개악-노사정 야합 분쇄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삭발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은 15일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대해 '야합'이라고 비판하며 '총파업'으로 맞서기로 했다.

한상균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17일 2000여 개 단위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표자 회의를 개최한 뒤 이 때 모인 결의를 바탕으로 총파업 돌입 지침 발동을 추석 전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와 별도로 16일 노동부를 대상으로 전국 민주노총 지역본부별 동시다발적인 규탄 집회를 열고, 17일 전국 사업장 대표자 회의를 거쳐 18일 공동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주말인 19일에는 서울에서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를 겸한 대규모집회를 열어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반대 여론을 이끌 계획이다. 10월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대회를 열고 11월에는 민중총궐기에 나서기로 했다.

동시에 민주노총은 청년부터 노년까지 각계 각층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개악 분쇄 범국민대책기구 구성'을 추진한다. 여기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노동조합을 비롯해 이번 합의안에 반발하는 한국노총 조합원들도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삭발행사로 자신들의 의지를 알리기도 했다.

/최치선 기자 chisunti@

박영선 "언론도 광고카르텔에 묶여 삼성문제에 침묵"

세금안내고 2~3조원 자산↑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논란과 관련해 "변칙적이고 편법적인 상속이 이루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은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심지어 상당수의 언론도 광고 카르텔에 묶여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의 이 같은 비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비상장회사의 상장이나 합병을 통해서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고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재벌가 사람들이 어떻게 세금을 한푼도 내지않고 자산을 취득하는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박 의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3남매가 합병 당시에 삼성물산 주식은 단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고 제일모직 주식만 45.07%(실질지분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삼성물산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제일모직은 고평가된 상태에서 합병을 함으로써 약 2조~3조원의 자산이 세금 한푼도 내지 않고 증가하게 되었다"며 "반면에 국민연금과 삼성물산의 소액주주가 이 부회장 3남매가 얻은 금액만큼을 손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 부회장 3남매는 공익법인에서 2조7000억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해서 약 2조원, 삼성에버랜드·삼성SDS의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저가 인수 및 상장등을 통하여 약 10조원 등 모두 15조원가량의 재산을 상속받고도 지금까지 증여세나 상속세는 이 부회장이 16억원을 납부한 것이 전부였다.

/송병형 기자

고위공직자 아들, 국적 버리고 병역면제

16명 미국·2명 캐나다 국적



지난 8월 25일 강원 춘천 102보충대에서 신병 입영행사가 열려 입영 장병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부와 사법부에 재직 중인 4급 이상 고위공무원의 아들 중 18명이 한국 국적을 버리고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5일 공개한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직자 아들 4명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중소기업청 고위 공직자 아들 각각 2명 △행정자치부, 교육부, 환경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농촌진흥청, 산림청, 헌법재판소 등의 고위공직자 아들 각각 1명 등이 한국 국적을 버리고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났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에 근무하는 서기관 1명은 장남과 차남이 캐나다 국적을 얻어 병역을 면제받았다. 나머지 16명은 모두 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와 관련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국적 이탈·상실로 병역에서 벗어난 사람은 2012년 2842명에서 2013년 3075명, 2014년 4386명으로 빠르게 증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7월말까지 2374명에 달했다.

지난 5년간 국적포기로 병역을 면제받은 이들이 가장 많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이었고 다음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순이었다.

전날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병무청 자료를 인용해 올해 상반기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은 2374명 중에서 30명이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직계비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진 위원은 "대한민국에서 혜택을 누리며 살아온 이들이 국적변경을 통해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것은 일종의 먹튀이다. 국적포기 병역 면제자에 대한 엄중한 규제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병무청에 요구했다.

안 의원도 "고위 공직자 아들이 이런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한다면 비판받아 마땅하고 엄중한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방부, 외교부, 대통령 비서실에는 정반대로 자녀가 미국과 영국의 영주권자이지만 자진입영하는 공직자도 있었다.

/송병형 기자

北, 미사일 발사·4차 핵실험 가시화



2012년 12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북한 장거리 미사일 은하3호가 발사되는 모습. /연합뉴스

美 워싱턴 업무 시작 겨냥 심야에 미사일 발사 시사
美 제재땐 핵퇴성 대응 위협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사한 데 이어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제4차 핵실험까지 암시하고 나섰다. 북한의 핵개발 목표는 미국 본토까지 도달 가능한 장사정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의 개발이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뒤 미국이 압박에 나서면 핵실험으로 다시 맞받아치는 일을 반복해 왔다. 북한은 북미관계와는 별도로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를 풀어가려는 의도지만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10월 10일)을 맞아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유엔의 제재에 한국이 참여하게 돼 남북관계 경색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북한 원자력연구원 원장은 15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 형식으로 "우리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무분별한 적대시정책에 계속 매여 달리면서 못되게 나온다면 언제든지 핵뢰성으로 대답할 만만의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핵뢰성'이란 핵실험에 따른 진동을 표현한 말이다. 북한은 2013년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이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암시했다고 보는 이유다.



지난달 22일 상업용 위성사진이 촬영한 북한 영변 핵단지 모습. 북한의 원자력연구원장은 15일 영변 핵시설이 정상 가동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그는 이어 "(2013년 제3차 핵실험 이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에 따라 우라늄 농축공장을 비롯한 영변의 모든 핵시설들과 5MW 흑연감속로의 용도가 조절변경되었으며 재정비되어 정상가동을 시작하였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각종 핵무기들의 질과 양적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핵억제력의 신뢰성을 백방으로 담보하기 위한 연구와 생산에서 연일 혁신을 창조하고 있다"고 말해 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수준으로 핵탄두가 소형화됐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조보근 국방부 국방정보본부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고폭실험 현황을 묻는 질문에 "금년에는 없었다"고 답한 바 있다. 고폭실험은 핵탄두를 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크기로 소형화하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100여차례 이상의 고폭실험을 해 온 북한이 갑작스레 실험을 중단한 것은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전례에 비추어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이 제재에 나설 경우 4차 핵실험에 나설 공산이 크다. 이날도 원자력연구원장은 "우리의 핵보유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산물이다. 다시 말하여 미국의 극단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에 대처한 자위적 조치"라고 말했다.

북한은 전날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을 통해 굳이 '심야'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사했다. 일과가 막 시작되는 미국 워싱턴 D.C.를 겨냥한 셈이다. 당시 우주개발국장은 "선군조선의 위성들이 우리 당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대지를 박차고 창공 높이 계속 날아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위성발사를 명분으로 당 창건 70주년에 앞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금도 넘은 '샤를리 엡도' 궁지

익사한 난민꼬마 조롱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공격으로 '표현의 자유'의 상징이 됐던 프랑스의 시사주간지 샤를리 엡도가 이번에는 금도를 넘어 궁지에 몰리게 됐다.

14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 보도에 따르면 샤를리 엡도는 최근 터키 해변에서 익사체로 발견된 세살배기 시리아 난민꼬마 아일란 쿠르디를 조롱하는 만평을 실었다. 쿠르디의 죽음은 전 세계에 유럽의 난민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 유럽 국가들이 난민문제 해결에 나서게 만들었다.



프랑스 시사주간지 '샤를리 엡도'가 숨진 3살 난민 아일란 쿠르디를 풍자한 만평. /출처: 허핑턴포스트

샤를리 엡도의 만평에는 해변가에 쿠르디를 연상시키는 아이의 익사체가 그려져 있고, 그 옆에 '거의 다 왔는데'라는 문구와 함께 '하나 가격으로 두 개의 햄버거 어린이 세트'라는 맥도날드 햄버거의 광고가 그려져 있다. 마치 쿠르디가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기 위해 자신의 고향을 떠나 유럽으로 향했다는 듯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또 다른 만평에서는 예수로 보이는 남성 옆에 '유럽의 기독교도는 물 위를 걷는다'라는 문구가 보인다. 또 물에 거꾸로 처박힌 아이 그림 옆에는 '무슬림 아이는 물 밑으로 가라앉는다'는 문구가 보인다. 이슬람교도에 대한 조롱인 셈이다.

만평을 그린 작가는 로랑 리스 수리소다. 그는 지난 테러 당시 어깨에 총을 맞았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테러 당시에는 영웅으로 평가받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전 세계로부터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샤를리 엡도의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천박하고 역겹다"라거나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인류애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것이냐"는 비난글이 줄을 잇고 있다.

/송시우 기자 swsong@

北 핵실험 위기에도 이산가족 생사확인 의뢰서 교환

상봉절차 합의대로 진행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4차 핵실험까지 시사한 상황에서도 남북은 합의대로 이산가족 상봉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

남북은 15일 판문점에서 이산가족 생사확인 의뢰서를 교환했다. 의뢰서의 명단에 담긴 이산가족은 남측이 250명, 북측이 200명이다. 앞서 한국적십자사는 전날 상봉 후보자 200명을 선정했다.

남측의 250명 중 50명은 별도로 뽑은 납북자와 국군포로 이산가족이다.

남북은 생사 확인을 거쳐 이들 중 각각 100명의 최종 상봉 대상자를 확정한다.

명단에 포함된 이산가족 중 남측 이산가족 최고령자는 함희주 할아버지로 103세다. 북측 최고령은 민숙의(97) 할머니다. 남측은 90세 이상이 82명, 80~89세 사이가 100명, 70~79세 사이가 46명, 69세 이하가 22명이다. 북측은 90세 이상이 1명, 80~89세 사이가 192명, 70~79세 사이가 7명이다.

상봉을 희망하는 가족관계는 남측의 경우 부부·부자가 131명, 형제·자매가 116명, 3촌 이상이 3명이다. 북측은 부부·부자가 164명, 형제·자매가 28명, 3촌 이상이 8명이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오는 10월 20~26일 금강산 면회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북한은 노동당 창건 70주년인 10월 10일에 앞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국이 참여하는 유엔의 대북제재로 이어진다. 북한이 북핵·미사일 문제를 북미관계 선상에서 다루고 있어 이산가족 상봉이 반드시 무산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남북관계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8·25합의로 훈풍이 불기 시작했던 남북관계는 다시 기로에 놓일 전망이다.

/송병형 기자

이한구 "국가채무, 20년 전 日보다 위험"

한때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렸던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국가채무비율이 별로 안 높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국가채무비율을 계산할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만 넣고 있지만 사실은 정부가 책임진 공기업·공공기관 채무도 다 포함해야 정확하다. 즉 채무비율을 계산할 때 2배로 계산해야 현실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40%대를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80%대를 넘는다는 이야기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일본이 20년 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70% 정도밖에 안 됐다. 우리는 일본과 비교가 안 되게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채무비율을 80%로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선진국들은 공기업·공공기관 비중이 아주 약하다"고 말했다. 선진국의 방식을 기계적으로 따르면 한국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국가채무비율 증가 원인에 대해서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일관하니 재정 건전성이 나빠진다"고 말했다.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 명분으로 삼고 있는 '선순환론'에 대한 비판이다. '선순환론'은 재정지출 확대로 경기를 부양해 세수를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송병형 기자

“바람 피운 배우자, 이혼청구 불가”

대법관 13명 중 7명 ‘유책주의’ 유지 제도 미비… ‘파탄주의’는 시기상조

바람을 피우는 등 결혼생활의 파탄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3명 가운데 7명은 잘못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는 ‘파탄주의’ 전환이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다만 민일영·김용덕·고영한·김창석·김신·김소영 대법관 등 6명은 파탄주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상 이혼제도뿐 아니라 외국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협의이혼 제도를 택하고 있어 잘못이 있는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이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전체 이혼 가운데 77.7%가 협의 이혼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법원은 이를 전제로 “유책 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을 위해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까지 파탄주의를 채택해야 할 필연적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파탄주의를 취하는 여러 나라에서는 상대방이나 자녀가 가혹한 상황에 빠지면 이혼을 허가하지 않는 이른바 가혹조항과 이혼 후 상대방에 대한 부양제도 등을 두는 등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아무런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법원이 판례로 기준을 제시하거나 위자료나 재산분할 실무로 상대방을 보다 두텁게 배려할 수도 있지만 사법적 기능만으로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파탄주의를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을 설명했다.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섣불리 파탄주의로 전환할 경우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크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이어 간통죄 폐지 이후 중혼을 처벌할 방법이 없어진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파탄주의로 간다면 법률이 금지하는 중혼을 결과적으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고, 축출이혼이 발생할 위험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1976년 A씨와 결혼한 B씨는 1998년 다른 여성과 사이에서 혼외자를 낳았다. 2000년 집을 나온 B씨는 이 여성과 동거를 하다 2011년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B씨의 이혼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김용덕 대법관이 15일 오후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독서를 권하는 계단 15일 오후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독서를 권하는 계단’을 걸어가고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서울도서관, 교보문고와 업무협약을 체결, 광화문역 계단에 독서와 관련된 이미지를 래핑해 시민들에게 독서를 권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지법서 13세 미만 성폭력범 50% 집유

최근 5년간 광주지법에서 재판받은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자의 절반가량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노철래(경기 광주) 의원이 15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상반기까지 13세 미만 대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피고인에 대한 광주지법의 자유형 선고율은 35.9%였다.

이 기간 처리된 170건 가운데 61건에 대해 자유형이 선고됐으며 집행유예 84건(49.4%), 재산형 14건(8.2%), 기타 11건 등의 분포를 보였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1천914건 가운데 자유형이 선고된 사례가 800건(41.8%), 집행유예 783건(40.9%), 재산형 110건(5.7%), 기타 221건이었다.

광주지법은 전국 평균과 비교해 자유형 선고율은 5.9% 포인트가 낮고 집행유예 비율은 8.5% 포인트 높았다.

노 의원은 “성폭력은 한 사람의 일생을 송두리째 억압하는 잔혹한 범죄”라며 “사법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엄중한 처벌로 단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선준 기자 rsunjun@

이춘석 “약촌오거리 사건 재심·재수사” 촉구

광주고법원장 상대 질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익산갑·법사위)이 15일 대전에서 열린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검찰청 및 산하 지법·지검 국정감사에서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에 대한 재심과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광주고법 국정감사에서 방극성 광주고법원장을 상대로 법원이 재심을 결정한 사유에 대해 질의했다. 방 법원장은 “유죄 판결을 받은 최모 씨를 무죄로 볼 새로운 증거가 인정된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사건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되었음을 상기시키며 사법부가 과거 판결에 얽매이지 말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신속하게 재심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대전 서구 대전검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검·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사장들이 이상민 위원장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조은석 청주지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 조성욱 대전고검장, 김희관 광주고검장, 김해수 광주지검장, 신유철 전주지검장, 조희진 제주지검장. /연합뉴스

오후 열린 광주고검 국정감사에서는 신유철 전주지검장을 상대로 철저한 재수사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재심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수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억울한 이의 무죄를 밝히는 것도 검찰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신 지검장은 법원의 판단이 있은 후 사건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춘석 의원은 “익산시민과 국민들이 약촌오거리 사건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억울함을 주장하는 사람의 목소리에 법원과 검찰이 귀를 기울여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미란 기자

‘협력사 뒷돈 혐의’ 농협중앙회장 최측근 체포

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5일 오전 경주 안강농협 전 이사 손모(63)씨를 체포해 조사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에 따르면 손씨는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농협물류의 협력업체 A사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중견 물류업체인 A사는 전담 계열사를 만들어 농협물류로부터 농협 평택물류센터의 입출고·재고관리 등을 하청받았다. 검찰은 이달 10일 A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사업 수주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수사해왔다.

손씨는 최원병(69) 농협중앙회 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올해 3월 최 회장의 고향인 안강농협 조합장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이후 농협중앙회가 당선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해 최 회장이 손씨에게 조합장 자리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검찰은 손씨를 상대로 A사에서 받은 뒷돈을 최 회장에게 전달했는지, A사의 식자재 납품 등과 관련해 또다른 뒷거래는 없었는지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16일 손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손씨의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가 최 회장의 비리 혐의를 직접 겨냥하는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다. /연미란 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학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서울시 국감 앞두고 '박원순 메르스 회견' 도마

강기윤 "국민안전처에 통보 없이 단독 회견은 위법"



서울시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이틀 앞두고 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관련 심야 긴급회견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 첫 국감은 17일 서울시 신청사에서 열린다.

국감이 열리기도 전 국회 안행위 소속 강기윤(새누리당) 의원은 박 시장의 '메르스 회견'이 위법한 조치였다고 15일 포문을 열었다.

강 의원은 자료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24조에 따르면 재난이 2개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발생한 경우 서울시장은 재난 원인, 피해 내용, 대응, 조치계획을 종합해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서울시가 6월4일 기자회견을 열기 전 국민안전처에 메르스 재난 상황을 통보한 내용이 없었으며 단독으로 회견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6월4일 회견에서 35번째 환자(38·삼성서울병원의사)가 6월1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과 5월30일 1천500여 명이 참석한 양재동 재건축조합 총회에 다녀온 상황 등을 발표했다.

강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 직후에도 35번 환자의 반박과 보건복지부와의 기자회견 사전협의 여부 등을 놓고 논란이 있었다"며 "서울시가 국민안전 주무부처에 재난상황을 알리지 않고 회견을 강행한 것은 법을 무시한 것"이라며 박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메르스 사태의 컨트롤타워였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사전에 소통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며 해당 법에 재난 최초 발생 보고 의무는 있지만 진행과정을 보고할 의무는 명시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서울시 시민건강국 관계자는 "최경환 당시 국무총리 대행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메르스관리대책본부장으로 격상시켰고 그쪽이 컨트롤타워였다"며 "35번째 환자에 관한 사항도 복지부에서 서울시에 알려준 것인 만큼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을 이 사안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오히려 당시 긴급한 상황을 알리므로써 중앙정부가 메르스 환자가 경유한 병원 명단을 공개하고 환자와 방문객들을 엄격히 자가격리 조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박원순 시장도 9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세미나에서 서울시의 메르스 대응에 대해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을 리드할 수 있었다"고 자평한 바 있다.

이달 14일 현재까지 서울시민 메르스 확진 환자는 총 52명이다. 이 중 40명이 완쾌됐고 4명은 치료 중이다. 사망자는 8명(사망률 15.4%)이다.

서울시는 메르스가 공식적으로 종식될 때까지 대책본부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

고소·고발 공화국… 74만명 수사기관에

올해 상반기만 40만명

최근 3년간 고소·고발로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넘어간 국민이 74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법무부가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익산갑, 법사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검·경에 고소·고발된 건수는 평균 52만8503건, 74만2041명에 달했다.

올해는 상반기 현재 282,446건, 407,626명이 고소·고발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 경기 남부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5만63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중앙지검, 부산지검이 뒤를 이었다. 제주지검은 5009명으로 고소·고발이 가장 적었고, 울산지검, 춘천지검 등이 뒤를 이었다.

고소·고발이 된 사람 중 실제 재판장에 선 사람은 평균 13만8785건, 15만3583명으로 기소율은 20.7%(인원 기준)에 그쳤다. 반면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는 고소와는 달리, 제3자가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고발의 경우 기소율이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고소고발의 증가로 정작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조차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고소고발 처리절차의 개선과 함께 상습적 고소 남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미란 기자

"정부, 론스타 이어 만수르 ISD 청구액 비공개"

민변 "비공개 납득 못해"

정부가 론스타의 국제중재 청구 내용을 비공개한 데 이어 아랍에미리트의 만수르 소유 국영투자 석유회사의 국제중재 청구액에 대해서도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민변은 15일 법무부로부터 받은 만수르의 ISD 청구 내역 비공개 결정서를 공개하며 "법무부는 만수르 회사로부터 국제중재 서류를 받은 곳은 법무부가 아니므로 법무부에는 해당 문서가 없다고 돼 있다"면서 "그러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ISD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면서 법무부가 주무 부처 기능을 하며, 론스타 국제중재 등에 대응하는 상황에서 법무부의 비공개 처분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변 국제통상위위원회 송기호 변호사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 국영투자 석유회사가 얼마를 어떠한 이유로 청구한 것인지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에 따르면 정부는 만수르의 국제 중재 회부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도 자료도 없이 공식적 확인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만수르의 국영석유 투자 공사와 자회사 하노칼은 한국 법원에 2400억의 세금 소송을 제기했다가 거듭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정부의 과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결했다. 만수르의 ISD 제기는 위 세금 소송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미란 기자



명동 한복판에서 벌꿀수확을? 15일 오후 서울 명동 유네스코회관 옥상에서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개최한 벌꿀수확 행사에서 민동석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오른쪽)과 박진 어반비즈 대표가 벌통을 열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檢 '체육계 비리' 국민체육진흥공단 압수수색

체육계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중인 검찰이 국민체육진흥공단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15일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2~3곳을 압수수색해 국가보조금 지급·집행 내역을 확보했다.

검찰은 공단 측이 스포츠 연구개발(R&D) 명목의 국고보조금 수억원을 유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륜·경정·체육진흥투표권사업(스포츠토토) 등을 관장하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산하 기관인 한국스포츠개발원을 통해 수익금 일부를 스포츠산업의 R&D 보조금 명목으로 지출한다. 작년 기준 R&D 보조금은 100억원대에 달한다.

검찰은 횡령 의혹 외에 공단 측의 탈세 혐의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상반기 세무조사에서 공단 측이 소득세와 개별소비세 신고를 일부 빠뜨린 사실을 확인하고 800억원대 세금 추징과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작년 5월 출범해 체육계 비리를 수사해온 '스포츠 4대악 합동수사반' 해체 후 스포츠 공공기관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가 대한체육회 등 체육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미란 기자

돌고래호 실종자 수색 '민간 저인망 어선' 철수

돌고래호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던 민간 저인망 어선이 모두 철수했다.

15일 제주해양경비안전부에 따르면 실종자 수중 표류 가능성에 대비해 수색에 동원했던 저인망어선 16척이 지난 14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모두 철수했다고 밝혔다.

저인망 어선 수색 성과가 미미한 데다 장기간 수색으로 어민들의 생계가 지장을 받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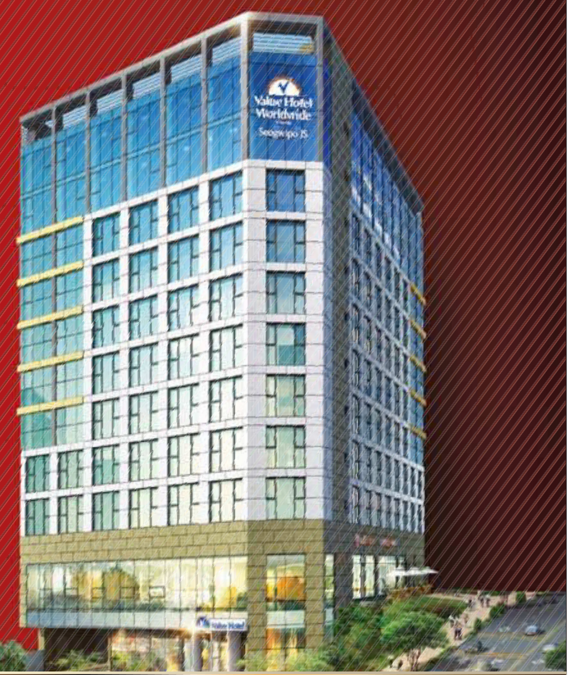
한편 돌고래호 전복 사고 12번째 사망자 장모(53)씨가 14일 오전 9시쯤 제주 하추자도 남동쪽 5㎞ 해상에서 발견됨에 따라 사망자는 총 12명으로 늘었고 남은 실종자는 6명(추정)으로 줄었다. 병원에서 치료받던 생존자 3명은 거주지인 부산 등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연미란 기자

제주도에서 가장 탐나는 자리인 서귀포 혁신도시와 강정택지지구 사이 –
세계 8대 호텔체인이 드리는 글로벌 호텔의 고수익 투자가치를 잡으십시오

밸류호텔월드와이드 서귀포JS 분양개시

다 드립니다

부대시설 : 실내수영장 / 사우나 / 휘트니스 / 고급컨벤션 /카페 테라스 / 호텔뷔페



Value Hotel Worldwide
by Vantage
Seogwipo JS

- ☑ **10년간** 안전보장(공증)
- ☑ **10년간** 연 15% 수익보장 (대출 50%기준, 이자5%이내 포함)
- ☑ **10년간** 대출이자 전액지원
- ☑ 준공 후 100% 환불보장 (5년 후 부터 적용)



年10% 10년간 수익보장 | 年5% 10년간 이자지급 | 안전보장 공증 | 분양가 100% 환불 | 50% 중도금 무이자

서귀포 혁신도시 9개 공공기관 이전, 연 15% 확정수익 [대출 50% 기준, 5%이내 이자포함], 세계 8대 호텔체인의 운영노하우

제주의 모든 가치를 담은 고수익 호텔–밸류호텔월드와이드 서귀포JS

FUTURE OF ISLAND
위치가 그대로 투자수익으로 이어지는 제주 최고의 자리!
서귀포 혁신도시 앞에 미래가치가 집중됩니다

INVESTMENT OF ISLAND
최대 연 15% 확정수익을 드리는 고수익 호텔!
제주에서 가장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선사합니다

HIGHCLASS SERVICE
세계 8대 호텔그룹의 운영노하우와 서비스!
세계적인 전문 운영·관리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청 약 금 안 내
청약계좌 : 외환은행 630-009732-071
청약금 : 100만원 **예금주 :** 아시아신탁(주)

02) 2097-7900

| 시행사 | (주)진성인터내셔널 | 시공사 | CHEONMA 천마종합건설 | 신탁사 | 아시아신탁 | 운영사 | Value Hotel Worldwide 밸류코리아 | 마케팅사 | |주|세종피엠씨

·위치 : 서귀포시 법환동 745–5번지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중심미관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대지면적 : 1,277.30㎡ ·규모 : 지하4층~지상10층 ·건축면적 : 938.42㎡ ·건폐율 : 73.47%(법정 : 80%) ·연면적 : 11,565.86㎡ ·용적률 : 701.00%(법정 : 1,000%) ·주차장 면적 : 824.08㎡
·외부마감 : 제주석, 화강석, 복층유리 ·주차대수 : 72대 설치 / 장애인주차 3대 ·공개공지 : 89.46㎡ (법정 : 1,277.30x7% = 89.41㎡ 이상)
·조경면적 : 208.25㎡ (법정 : 1,277.30㎡x 15%=191.60㎡ 이상)
·상기 위치도, 조감도, 단지조감도, 이미지사진, 아이소, 평면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삼성페이, 글로벌시장 성공 가능성은?

국내출시 좋은 반응·스마트폰 판매 견인차 기대
타사보다 범용성 앞서지만 지원기기 확대 과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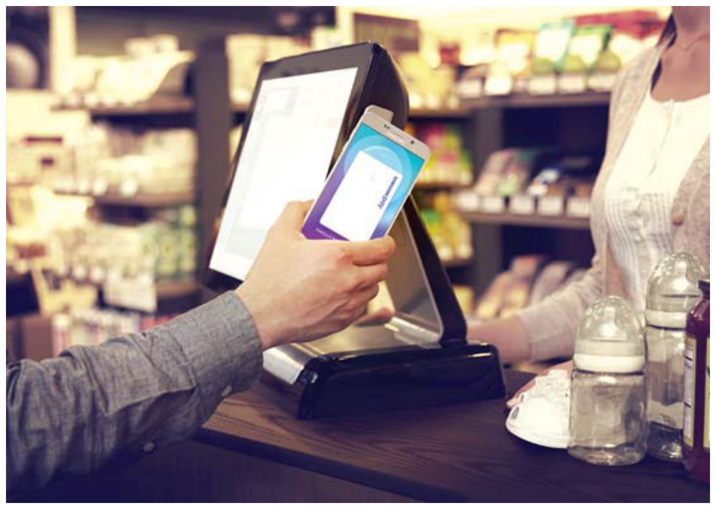
삼성페이는 '신의 한수'가 될 수 있을까. 글로벌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삼성페이의 성공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애플페이' '안드로이드페이' 등과의 본격적인 경쟁에서 승리할 경우 삼성전자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15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28일부터 미국에서 삼성페이의 정식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삼성페이가 해외에 진출하는 것은 미국이 처음이다. 향후 삼성전자는 중국 등 거대시장에서도 삼성페이 론칭 계획을 세우고 있다.

삼성페이는 삼성전자가 역량을 쏟는 사업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과 중국 금융사를 상대로 직접 영업을 펼칠 정도다. 이는 삼성페이가 삼성전자 미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계는 삼성페이의 확산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과 직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페이 사용자가 늘수록 갤럭시 시리즈 등 스마트폰 판매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삼성페이는 국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출시 후 10일 만에 등록카드 수가 20만장을 넘어서는 등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재사용률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근거리이동통신(NFC) 방식과 마그네틱보안전송(MTS) 방식 결제를 모두 지원하는 삼성페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애플페이, 안드로이드페이에 비해 범용성에서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애플페이와 안드로이드페이는 NFC 방식 단말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국내와 북미의 NFC 지원 결제단말기의 보급률은 각각 1%, 5%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갤럭시노트5에 탑재된 삼성페이로 결제하는 모습. /삼성전자 제공

그러나 삼성페이는 지원 기기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현재 삼성페이를 지원하는 기종은 갤럭시노트5를 비롯한 플래그십 스마트폰 4종이다. 애플페이는 아이폰6 이후 출시된 스마트폰과 애플워치 등 판매량이 높은애플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페이는 NFC기능과 안드로이드 4.4 킷캣 버전 이상의 운영체제(OS)를 탑재한 기기에서 동작한다.

지원 기기의 확대가 삼성페이의 가장 큰 과제로 꼽힌다. '페이전쟁' 초기에 밀리면 글로벌 시장 연착륙에 고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삼성전자는 중저가 스마트폰에도 삼성페이 탑재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제조 단가상승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 우려가 있어 삼성전자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 등 '빅 마켓'에서 삼성페이의 성적표는 향후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삼성페이가 내수용 서비스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전략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한진 기자 hjc@metroseoul.co.kr

LGD, 미래 신기술 발굴 머리 맞댄다

협력사 초청 '테크포럼' 개최

LG디스플레이가 협력사와 함께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을 통한 미래 신기술 발굴에 힘쓴다.

LG디스플레이는 15일 머크, 아사히 글라스, 스미토모 등 디스플레이 소재 및 부품 각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협력사를 파주공장에 초청해 '2015 LG디스플레이 테크 포럼'을 개최했다.

'OLED,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재료, 공정, 글라스, 회로 분야 13개 주요 협력사가 참여해 시장 동향과 LG디스플레이의 OLED·LCD 기술 개발 방향을 공유하고 미래기술에 대한 변함없는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LG디스플레이는 이번 테크 포럼에 OLED 비중을 크게 높여 대형과 소형에 따른 OLED 구체적인


강인병 LG디스플레이 CTO 전무(오른쪽)가 Kaneka의 히로사쿠 나가노 부사장(가운데)과 SKC Haas 이태화 사장에게 전시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 제공

사업전략을 발표하고, 각 사업 단계별로 협력사와 함께 개발할 기술과 제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LG디스플레이는 이번 테크포럼부터 '테크놀로지 이노베이션 어워드'를 신설해 혁신적인 기술로 LG디스플레이의 제품 성능 향상에 기여한 협력사에게 포상했다. 이번에는 초박형 패널 구현을 위한 글라스 도광판을 개발한 아사히 글라스를 비롯해 디스플레이 소재 업체인 머크와 니또덴코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조한진 기자

LG전자 '올해의 녹색상품' 업계 최다 수상

6년 연속 수상·4년 연속 최다

LG전자는 자사 제품들이 녹색구매네트워크가 선정한 '올해의 녹색상품'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이날 녹색구매네트워크는 휘센 듀얼 에어컨(F-Q160PT1W), 상냉동 타입의 싱싱냉장고(R-B261GBW), 인버터 냉온정수기(WD501GW) 등 LG전자 제품 3개를 올해의 녹색상품으로 선정했다.

LG전자는 2010년부터 6년 연속 올해의 녹색상품을 수상하는 동시에 4년 연속으로 업계 최다


왼쪽부터 휘센 듀얼에어컨, 싱싱냉장고, 인버터 냉온정수기.

수상의 영예를 이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녹색구매네트워크는 친환경 상품에 대한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력소비가 적고 환경개선 효과가 탁월해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는 제품을 올해의 녹색상품으로 선정하고 있다.

휘센 듀얼 에어컨은 양쪽 토출구 중 하나만 사용하는 듀얼 절전 냉방 시 일반 냉방 대비 최대 50.3%의 에너지를 절감한다. 또 에너지 프론티어 등급도 획득했다.

상냉동 타입의 싱싱냉장고는 고효율의 인버터 컴프레서를 탑재해 에너지소비 효율 1등급을 달성했다.

인버터 냉온정수기는 국내 최초로 인버터 컴프레서를 적용한 정수기로 기존 정속형 제품 대비 소비전력을 약 40% 줄였다.

/임은정 기자 eunj71@

한국타이어, 3년연속 'DJSI 아시아퍼시픽' 편입

한국타이어는 '2015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아시아퍼시픽'에 3년 연속 편입됐다고 15일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DJSI 아시아퍼시픽 부분 평가 대상 600개 기업 중 자동차 부품 산업 내 최고 회사 중 하나로 선정돼 경제, 환경,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지속가능성 역량을 입증했다고 전했다.

한국타이어는 기후변화 대응, 임직원 역량 개발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CSR(기업사회적책임)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해 상품 환경, 사업장 EHS(환경·건강·안전), 윤리경영, 리스크, 사회공헌, 임직원, 고객, 협력사, 에너지·탄소 등 9개의 부문 별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소위원회와 유관부서에 책임과 역할을 부여해 임직원 업무와 CSR 활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용기 기자 yonggi@

삼성, 동급 최강 흑백레이저 프린터·복합기 출시

중소기업 특화… 내구성↑

삼성전자는 중소기업 비즈니스 효율성 향상에 최적화된 흑백 레이저 프린터 'M4030ND 시리즈'와 흑백 복합기 'M4080FX 시리즈'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M4030ND·4080FX 시리즈'는 흑백 출력량이 많은 중소기업에 특화된 제품이다. 동급 최고의 출력 속도와 내구성은 물론 대기업 수준의 보안 기능도 제공한다.

'M4030ND·4080FX 시리즈'는 1기가 듀얼코어 프로세서를 탑재해 분당 40매의 고속 출력이 가능하다. 동급 최대 월 12만매 출력이 가능해 많은 출력에도 고장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췄다.

특히 출력 시 사용자 인증을 위한 ▲PIN 번호 입력 ▲NFC모바일 기기 태그 ▲신분증 태그 등 대기업 수준의 출력보안 기능을 기본 옵션으로 제공해 정부 기관이나 전문직종 등 기밀문서의 출력이 많은 산업군 업체들이 간편하고 안전하게 출력물을 관리할 수 있다.

흑백 복합기 'M4080FX 시리즈'는 분당 최대 60매의 양면 스캔이 가능해 로펌이나 디자인 회사 등 많은 스캔 작업을 하는 기업에 유용하다. 흑백 레이저 프린터 'M4030



ND 시리즈'는 한번에 최대 2850매의 용지를 적재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이밖에 개방형 플랫폼인 'XOA'를 적용해 장비·출력관리 솔루션 등을 보다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구매 비용 절감은 물론 업무 생산성과 관리 편의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조한진 기자

삼성 멘토링 발판… '대박 벤처' 꿈 영근다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1년


15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1주년 기념식에서 삼성과 브라질 혁신기업협회(ANPROTEC)가 벤처,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 협력을 위한 계약을 맺었다. 왼쪽 다섯 번째부터 김선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 프란시스 가르시아 브라질 혁신기업협회 의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상훈 삼성전자 사장.

법·회계·인사 등 전방위 지원
혁신기술로 국내외서 러브콜
창조경제 모델 해외수출 효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범 1년만에 눈에 띄는 성과를 만들고 있다.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과 지역 혁신센터가 연계한 첫 번째 사례다. 전담기업인 삼성의 멘토링을 바탕으로 벤처기업들이 빠른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15일 대구혁신센터에서 기념식을 열고 지난 1년간의 활동과 성과를 공유했다. 대구혁신센터는 지난해 9월 15일 삼성그룹의 창업지인 옛 제일모직 터에서 문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존 벤처기업의 성공사례를 뛰어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전 세계 업체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어 대구가 아닌 세계의 센터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모멘텀에 있어 창조경제가 유일하고 절박한 선택이라고 본다"며 "미래부는 창조경제지원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훈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사장)은 "출범 당시 목표로 했던 벤처 생태계 육성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창조경제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장에서 만난 벤처기업 '테크트랜스' '구니스' '월넛' 대표의 표정에서는 행복함과 기대감·긴장감이 묻어났다. 이들은 "삼성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가 없었다면 지금의 회사도 없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창조경제 성과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디자인 설계 프로그램 개발업체 월넛은 지난 1년 동안 삼성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의 도움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지난해 매출 3000만원에 불과했던 월넛은 올 한 해 동안 무려 40배나 성장한 12억원의 매출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경동 월넛 대표는 "개발에 대한 열정만으로 그동안 수많은 도전과 실패를 반복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다. 바로 법, 회계, 인사 등이 발목을 잡았다"고 밝힌 뒤 "삼성전자와 제일모직, 삼성벤처투자의 지원을 받으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했다.

바로 삼성의 'C-랩(Lab) 액셀러레이팅(조기육성)' 프로그램을 두고 한 말이다. C-랩 프로그램은 삼성이 파견한 전문가와 일대일 창업 멘토링, 시제품 제작을 위한 시설, 삼성벤처투자의 투자자문 등을 제공한다.

덕분에 월넛은 중국 칭화대 과학기술원과 연계 현지 사업 IR을 개최하는 등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실제 해외 시장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뛰어난 비철금속 표면처리 기술을 보유한 테크트랜스는 삼성 벤처파트너스데이를 통해 운영 자금 3억원을 지원받아 최근 미국 유명 전기자동차 업체와 납품계약을 맺었다.

/대구=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2015 프랑크푸르트모터쇼

'고성능 브랜드 N' 방향성 관람객 이목 집중

현대차

모터스포츠 참가 경험 결실
차세대 i20 랠리카 첫 공개


알버트 미어만 현대차 고성능차 개발 담당 부사장이 '고성능 브랜드 N'을 소개하고 있다. /현대차 제공

현대자동차가 독일 프랑크푸르트모터쇼(IAA)에서 '고성능 브랜드 N'의 방향성을 15일 공개하며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현대차는 그 동안 축적된 제품 개발력에 모터스포츠 참가를 통해 얻어진 고성능차에 대한 경험과 기술력을 더해 '고성능 브랜드 N'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알버트 비어만 현대차 고성능차 개발담당 부사장은 "현대차는 고성능 브랜드 N을 통해 새롭게 도전하고 변화하고 있다"며 "그 동안 모터스포츠 참가로 얻은 기술에 대한 영감과 경험은 새로운 차량의 개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 부스에 별도의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차세대 i20 월드랠리챔피언십(WRC) 랠리카'와 'N 2025 비전 그란 투리스모' 쇼카를 전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또 콘셉트카 'RM15', 'i30 터보' 모델도 전시한다.

현대차 부스는 2093㎡(약 633평)의 규모로 들어섰다.

이곳에서 유럽 현지전략모델 'i20 액티브'와 '싼타페 상품성개선 모델', '비전 G' 등 총 18대의 차량과 각종 기술 전시물을 출품한다. /정용기 기자 yonggi@

티볼리 디젤 모델로 유럽시장 공략 가속도

쌍용차

콘셉트카 XLV-에어 등 선봬
내년 글로벌 판매 10만대 목표



쌍용자동차가 프랑크푸르트모터쇼(2015 IAA)에서 티볼리 디젤 모델을 출시해 유럽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고 15일 밝혔다.

2015 IAA 프레스데이 행사에서 쌍용차는 558㎡ 면적의 전시장에 내년 초 출시 예정인 티볼리 롱보디의 양산형 콘셉트카 XLV-에어(사진)와 정통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콘셉트카 XAV-어드벤처도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효율성을 중시하며 모든 차종에서 디젤 모델의 선택 비율이 높은 유럽에서 티볼리 디젤이 공식 출시됨으로써 현지시장에서의 판매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쌍용차는 기대하고 있다.

티볼리 디젤 모델은 7월 국내 출시 후 뛰어난 연비는 물론 강화된 주행성능으로 호평 받았다.

쌍용차는 롱보디 버전을 포함해 2016년 티볼리의 연간 글로벌 판매 10만대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종식 쌍용차 대표이사는 "이번 IAA에서는 티볼리 플랫폼의 활용을 통해 진화해 가는 티볼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티볼리 롱보디 모델로 라인업을 강화해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유럽시장 판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프랑크푸르트(독일)=이정필 기자 roman@

효성, 유럽서 '탄섬' 알리기 팔 걷어

<탄소섬유 브랜드>

독일서 22~24일 전시회 참가

효성은 22일부터 24일까지 독일 슈트트가르트에서 열리는 '컴포지트 유럽 2015'에 참가한다.

컴포지트 유럽은 탄소 복합재료 고객사와 경쟁사가 참여하는 유럽 최대 탄소 복합재료 전시회다.

효성은 이번 전시회에서 CNG(압축천연가스) 고압 용기, 전선 심재 등 탄섬으로 만든 제품을 선보인다.

또 탄소섬유 복합재료 시장의 트렌드·경쟁사 동향을 파악해 고객 니즈에 대응하는 등 신규 고객 확보에 나선다.

조현상 효성 부사장은 "효성은 후발 업체로 탄소섬유 시장에 도전해 기술력과 품질로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한국경제를 이끌 최첨단 소재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뿐만 아니라 국내 강소 탄소·복합재료 기업들의 기술·마케팅 역량을 확대해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열가소성 탄소섬유 합성물 제조업체인 액시아머티리얼스 ▲탄소섬유와 아라미드 섬유를 활용한 가방·케이스 제작업체인 케이스 등 탄소 강소기업과 동반 참가한다.

이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갖췄지만 판로개척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용기기자 yonggi@

한화, 청소년과 자전거 국토종주

633㎞ '다름의 동행' 진행

한화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로 달리는 '한화 자전거 국토종주-다름의 동행, 평화를 달리다' 프로그램을 14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새터민청소년들을 포함한 청소년들이 참가한다.

한화는 청소년들의 국토사랑과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이 행사를 기획했다.

또 새터민청소년들과 다른 청소년 참가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화 임직원 60여명은 각 구간별로 청소년들과 자전거를 타며 도우미 역할을 수행한다.

14일 출정식을 가진 청소년들은 서울 광나루에서 출발해 여주 이포보에 도착했다. 남은 일정 동안 충주, 문경, 구미, 대구, 창녕을 거쳐 부산까지 총 633㎞의 대장정에 나선다. /정용기 기자

기아차, 판매부진·파업까지… 불안감 엄습

파업 가결 시 신차효과도 불투명·수입 SUV 공세도 변수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의 파업이 가시화되면서 15일 출시된 신형 스포티지 신차효과에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기아차는 신형 스포티지로 올해 부진한 판매량을 벗어나야 하는 상황에서 노조 리스크로 4년 연속 파업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생겼다.

기아차 노조는 임금교섭에 진전이 없어 불만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9일 현대차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되면서 기아차 파업 찬반투표도 가결될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파업이 시작되면 생산 차질에 따른 매출손실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아차 조합원 3만4000여명은 16일 파업 찬반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에 돌입한다. 앞서 현대차 노조가 조합원 4만8585명을 대상으로 벌인 파업 찬반투표는 69.75%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기아차 노사는 추석 전 임단협 타결을 위해 9일까지 8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기본급 15만9900원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기아차 신형 스포티지. /기아차 제공

글로벌 경기침체와 수입차의 거친 공세, 노조리스크 등의 악재로 이날 출시된 신형 스포티지의 신차 효과는 반감되는 모습이다. 올해 1~8월 스포티지의 판매량은 2만4827대로 전년비 25.8% 뒷걸음질 쳤다. 현재 기아차 SUV 실적은 쏘렌토가 이끌고 있는 상태다. 대형 SUV 모하비는 지난달부터 내년 초까지 생산이 중단된다. SUV 실적 개선을 위해 신형 스포티지 판매량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박한우 기아차 사장은 "영업일수 9일 만에 5000대 사전계약을 완료했다"며 "현대차 투싼과 함께 공동 전선을 펼쳐 국내에서 많이 팔리는 경쟁 SUV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기아차는 신형 스포티지의 경쟁 차종으로 폭스바겐의 티구안을 지목하면서 견제하고 있다. 티구안은 올해 1~8월 6069대 팔리며 폭스바겐의 국내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티구안 돌풍에 힘입어 폭스바겐의 올해 1~8월 판매량은 전년비 17.8% 증가했다.

/정용기 기자 yonggi@metroseoul.co.kr

KT·서울대, 국내 최대 생명정보연구센터 설립

"韓 대표 연구소로 육성할 것"

KT가 서울대학교와 생명정보 연구를 위한 국내 최대 규모 연구센터를 설립했다.

KT는 1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황창규 KT 회장,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 등 KT와 서울대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정보실용화센터(IBIS)' 개소식을 가졌다.

서울대학교 생명공학공동연구원에 위치한 IBIS는 일주일에 약 100명의 전체 유전체를 분석할 수 있는 국내 최대규모의 생명정보 데이터분석 전문 연구센터다.

KT의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역량과 서울대의 생명정보 분석기술을 통해 유전체 분석 솔루션 개발과 관련 사업발굴을 목표로 설립됐다.

KT와 서울대는 지난해 5월부터 바이오인포매틱스 산학협력을 통해 암 발병 원인 유전자 검사 기술과 유전체 정보분석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왔다. 이번 개소를 통해 향후 암 유전체 분석 알고리즘 개발부터 암 동반진단 기술개발에 이르기까지 첨단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1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생명정보실용화센터' 개소식에서 황창규 KT 회장(왼쪽)과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KT 제공

황 회장은 "IBIS를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로 육성해 학문적인 선도는 물론 ICT와 BT(바이오기술)의 융합을 통해 국가 경쟁력, 국민 삶의 질 증진,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통한 국가 창조경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hm0108@

LGU+, 개방형 플랫폼 개발 사례 공유

사물인터넷 컨퍼런스 개최

LG유플러스는 오는 22일 서울 상암사옥 대강당에서 사물인터넷(IoT)에 관심 있는 기업과 일반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제1회 LTE오픈이노베이션센터 IoT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개방형 플랫폼을 통한 산업 및 서비스 활성화'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컨퍼런스는 국내외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참여 기업의 제품 전시도 이뤄진다.

컨퍼런스에서는 LG유플러스의 상생센터인 LTE오픈이노베이션센터 지원 정책 소개와 퀄컴의 IoT상생전략, 펀드 운영 방향이 소개된다.

또 유플러스 IoT플랫폼을 적용한 드론 GCS(지상통제장비)와 실시간 영상 전송시스템 개발, 비콘센서를 활용한 식품공장 IoT 적용사례, LTE아두이노 센서 보드를 활용한 IoT서비스 개발과 검증 등 적용 사례가 발표된다.

서재용 LG유플러스 IoT서비스개발팀 팀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개방형 IoT 에코 시스템을 조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준비됐다"라며 "LTE오픈이노베이션센터에 가입돼 있는 2000여개 기업 및 개인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개발 지원프로그램 소개와 실제 개발 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LG CNS, 우즈벡 현지 합작법인 출범

우즈베키스탄 정부 지분 참여
공공·민간 영역 정보화 담당

LG CNS가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에 현지 정보통신기술개발부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현지 공공·민간 정보화 사업을 도맡는다.

15일 LG CNS는 전일(현지시간) 우즈벡 탄슈켄트에서 'LG CNS 우즈베키스탄 유한회사'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대훈 LG CNS 사장, 후르시드 미르자히도프 우즈베키스탄 정보통신기술개발부 장관과 김남석 차관, 키슬라트 카사노프 유니콘 사장 등이 참석했다.

합작법인은 LG CNS가 51%, 우즈벡 정부 부처인 정보통신기술개발부 산하 국영기업 우즈텔레콤과 유니콘이 각각 29%, 20% 지분을 갖는다.

합작법인은 향후 현지 모든 공공·민간 영역의 IT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우즈벡 정보통신기술개발부 주관 사업을 수주, 이행한다.

현재는 법인·개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사업을 수주, 구축 중이다. 곧 발주될 전자정부 통합 플랫폼 사업, 세정위원회의 국세통합시스템, 타슈켄트 교통카드 사업, 디지털 도서관 구축 사업, 가스공사 ERP, 우즈텔레콤의 요금 청구 시스템 구축 사업 등도 준비하고 있다.

LG CNS는 합작법인 설립으로 두터워진 우즈벡 정부와의 관계를 기반으로 앞으로 현지 태양광 발전, 스마트 그린 시트 등의 사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즈벡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의 다른 나라 진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대훈 사장은 "LG CNS가 축적해온 기술력과 사업 노하우를 활용해 우즈벡의 ICT 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KT, 5G 서비스 준비위한 동반성장 아이디어 축제 열어



15일 한원식 KT 경영기획부문 구매협력실장이 강원도 원주 KT 리더십아카데미에서 개최된 RTC 행사에서 참석자들에게 5G 통신 서비스 준비를 위한 미래핵심기술과 동반성장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KT 제공

KT는 14일부터 사흘 일정으로 강원도 원주 KT 리더십아카데미에서 협력회사 관계자들과 5세대(5G) 통신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한 아이디어 회의 'RTC'를 개최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RTC는 KT와 협력사간 경계 없는 행사로 2014년부터 추진해온 KT의 동반성장 프로그램이다.

이번 회의에는 5G 관련 핵심기술을 보유한 협력회사 최고기술경영자(CTO)와 KT 임직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협력사뿐만 아니라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과 WIS(World IT Show)에 참가했던 다양한 미래 핵심기술 보유 회사까지 참여했다.

한원식 KT 경영기획부문 상무는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고 새로운 솔루션을 활용한 다양한 융합서비스 발굴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졌다"며 "그 어느 때보다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각자 분야의 경계를 넘어 격의 없는 토론과 아이디어 발굴로 동반성장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행사에 참여한 주요 협력사인 삼성전자, 에릭슨엘지, 가온미디어 등 참가자들은 "미래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CTO가 직접 해커톤에 참여해 각자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짜여진 각본 없이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는 것 같다.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정문경 기자

신세계인터내셔날株, '돈 먹는 하마'에 발목

비디비치, 3년 연속 적자 이어 상반기도 9억원 영업적자
3차례 유증으로 100억원 투자…'밑빠진 독 물붓기' 우려



신세계인터내셔날 주가가 계열사 비디비치(VIDI VICI)코스메틱의 연이은 손실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 신세계인터는 화장품 브랜드 비디비치를 인수한 이후 10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등 화장품 업계에서 지위를 굳히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비디비치가 3년 연속 적자를 이어가면서 신세계인터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신세계인터는 전 거래일 대비 2.05%(2500원) 내린 11만9500원에 거래를 마치며 3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신세계인터 주가는 자사의 2분기 실적 향상 전망에 따라 지난달 12일 종가기준 16만3000원을 기록한 이후 현재까지 26.68% 역주행했다.

15일 신세계인터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비디비치는 올해 상반기 9억9100만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은 16억1800만원이다. 전기 영업적자 61억7000만원과 당기순손실 66억9400만원에서 크게 줄었으나 적자 추세는 3년째 계속되고 있다. 비디비치는 지난 2012년 23억원, 2013년에도 41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같은 기간 유동비율은 673%에서 21%로 급감했고, 부채비율은 25%에서 1000%를 넘어섰다.

재무구조가 악화되자 신세계인터는 올해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총 18개 매장을 13개로 줄이고 홈쇼핑 브랜드인 '터치바이 이경민'도 없앴다.

비디비치는 지난 2005년 유명 메이크업아티스트인 이경민 원장이 론칭한 색조 화장품 브랜드다. 프리미엄 브랜드로 시작했지만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을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의 여동생인 정유경 부사장이 지난 2012년 60억원을 들여 인수했다.

그동안 신세계인터는 보브, 지컷, 톰보이 등을 필두로 패션 대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굳혀 왔다. 수출 라인업을 갖춘 신세계인터의 화장품 사업 잔출 소식은 투자자들의 기대를 한껏 끌어 올렸다. 실제로 당시 신세계인터의 비디비치 인수 소식이 전해진 2012년 3월 주가는 하루 만에 7% 이상 오르는 등 5거래일 동안 14.35% 급등하기도 했다.

신세계인터는 비디비치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3년 동안 신세계인터가 비디비치에 지원한 금액만 총 102억원에 달한다.

비디비치는 올해 2월 4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 신상품 개발과 마케팅 비용 등 회사 운영 자금을 조달했다. 이에 따라 신세계인터는 33억원 가량을 비디비치에 지원했다.

비디비치는 앞서 운영자금 명목으로 지난 2012년 말 40억원, 지난해 30억원씩 유증을 실시한 바 있다. 이때도 신세계인터는 각각 39억원, 30억원 가량을 지원했다.

문제는 비디비치의 적자가 신세계인터 주가까지 끌어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주 증권가에선 신세계인터의 3분기 매출이 작년 3분기 대비 14%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주가는 반짝 상승에 그쳤고 이내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세계인터는 화장품 사업 확장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세계인터는 지난 3월 비디비치 주식 800만주(12.27%)를 새로 취득한 데 이어 지난 8월 주식 30만9981주(2.80%)를 사들여 지분율을 올해 초 82.96%에서 98.03%로 늘렸다. 그러면서 홍콩 매장을 늘리고 면세점 사업을 확장했다.

신세계인터의 행보를 두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란 시장의 우려와 함께 비디비치의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가 공존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통합 삼성물산, 약세 출발해 상승 반전

첫날 3% 가까이↑…시총 4위



통합 삼성물산주가가 거래 첫날 3% 가까이 상승하며 시가총액 4위에 올랐다.

1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물산은 전 거래일 대비 2.84%(4500원) 오른 16만3000원에 장을 마쳤다. 이날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2.84% 하락한 15만4000원에 거래를 시작한 삼성물산은 이내 오름세로 전환해 상승폭을 키워나갔다.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은 30조9194억원으로 삼성전자(165조4171억원), 현대차(34조4732억원), 한국전력(31조2315억원)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지난 1일 '통합 삼성물산'으로 공식 출범, 존속 법인인 제일모직은 지난 14일까지 거래되다 15일부터 삼성물산으로 종목 명칭이 바뀌었다. 기존 삼성물산은 지난달 15일 이후 한 달 동안 거래가 중지됐다가 이날 삼성물산 주식 3주가 제일모직 주식 1주로 전환돼 합병신주 5600만여주가 상장되면서 거래가 시작됐다.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16.54%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이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이 각각 5.51%의 지분을 갖고 있다. 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86%, 삼성SDI도 4.7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로써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 지분은 총 40.26%에 달한다.

자사주는 전체 발행주식의 14.49%, 국민연금 지분율은 7%다. 삼성물산 지분 2.2%를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합병 후 지분이 희석돼 지분율이 0.6%로 낮아졌다.

김준섭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통합 삼성물산은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삼성전자의 경영권을 안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삼성그룹의 구조조정 방향은 금산분리 이슈와 상속 이슈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보배 기자 bobae@

S&P, 한국 신용등급 상향조정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다.

한국은 S&P와 무디스, 피치 등 3대 국제 신용평가기관에서 사상 처음으로 AA- 등급을 받게돼 평균 신용등급이 일본, 중국보다 높아졌다.

S&P는 15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한 단계 올렸다고 밝혔다.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제시됐다.

S&P는 지난해 9월 한국의 신용등급을 A+로 유지한 채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올려 등급 상향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신용등급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것은 앞으로 6~24개월 사이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우리나라가 S&P로부터 AA-등급을 받은 것은 IMF(국제통화기금) 금융위기 직전인 1997년 8월6일(AA-) 이후 18년여 만이다.

S&P는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 이유로 우호적인 정책 환경, 견조한 재정상황, 우수한 대외건전성을 제시했다.

우호적인 정책 환경과 관련해 한국은 앞으로 3~5년간 대다수 선진국에 비해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S&P는 평가했다.

/차기태 기자 folium@

증권 마감시황



코스피, 기관 매수 힘입어 소폭 상승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코스피가 기관 매수에 힘입어 힘겹게 상승 마감했다.

15일 코스피는 전날 보다 6.10포인트(0.32%) 오른 1937.56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1.02포인트 빠진 1930.44로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외국인과 개인의 동반 매도세에 밀려 장 초반 줄다리기를 거듭했다.

매매주체별로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1163억원, 1351억원어치를 순매도해 지수를 끌어내렸다. 하지만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이 2123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하락을 방어했다.

업종별로는 상승업종이 우세했다. 철강금속, 운수창고, 전기전자 업종만이 약보합 마감했다. 반면 증권, 섬유의복, 의료정밀이 2%대 상승했고 은행과 의약품도 1%대 상승률을 보였다.

시가총액 상위종목 중에서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각각 1.29%, 1.97% 올랐고 거래 첫 날인 통합 삼성물산이 2%대 상승했다. 반면 삼성전자(-0.09%), SK하이닉스(-2.89%), 현대모비스(-0.47%) 등은 약세를 보였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3.87포인트(0.58%) 오른 666.75에 거래를 마쳤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270억원, 30억원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235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대부분 상승했다. 운송이 4%대로 크게 올랐고 건설, 일반전기전자, 금융, 유통 등도 1%대 상승했다. 반면 종이목재와 통신서비스는 1%대 하락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동서와 파라다이스, 컴투스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올랐다. 셀트리온이 1%대 상승했고 이오테크닉스와 GS홈쇼핑도 2%대 상승 마감했다. /김보배 기자



박진희 한국씨티은행장 연봉 20% 자진 반납 한국씨티은행은 박진회 행장이 연봉의 20%를 자진 반납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씨티은행은 "금융권에서 시작돼 사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금융지주회장과 은행장들의 연봉 반납 취지를 살리고 노동시장 개혁과 장기적 청년일자리 창출의 사회적 분위기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납 배경을 설명했다. /씨티은행 제공

카드사, DCDS로 '떼돈'

<채무유예·면제상품>

"부수입 창구로 변질" 지적

카드사가 고객의 사망·질병 시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채무유예·면제상품(DCDS)'으로 높은 수수료 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보상률은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DCDS는 신용카드사가 회원을 상대로 일정 수수료를 받고 사망하거나 질병이 생기면 카드대금 등 채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일종의 보험과 같은 상품이다. 카드사들은 회원들에게 매달 카드결제액의 약 0.35~0.49%의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올리고, 보험사에 보험료를 지불해 리스크를 회피한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DCDS 운영현황'과 '수수료율 적정성 검증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간 7개 카드사는 총 9645억원의 수수료를 거둬들이고 보험료로 1688억원을 지불해 7957억원을 남겼다.

사망·사고가 발생해 지급한 보상금은 938억원으로, 보상률은 9.73%에 불과했다.

카드사별로는 삼성카드의 수수료 수입이 198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카드(1470억원), KB국민카드(1193억원), 신한카드(1177억원), 비씨카드(1천168억원)가 뒤를 이었다.

카드사의 DCDS 회원은 2011년 213만 명에서 올해 346만 명으로 1.6배 이상 증가했지만, 2011년 25%의 인하 요인이 있음에도 수수료는 2013년 한 차례 12.5%를 내렸을 뿐이다.

회원이 늘면서 불완전판매도 증가해 2010~2012년 DCDS와 관련한 민원 중 불완전판매가 77.4%에 달했다.

이상직 의원은 "채무유예·면제상품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카드사의 부수입을 위한 창구로 변질됐다"며 "이 상품의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차기태 기자

"내년 국민소득 2만7000달러로 감소"

내년에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2%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소득도 2만7100달러에서 2만7000달러로 줄고 취업자 증가폭도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15일 LG경제연구원은 '2016년 경제전망 : 경제성장률 올해와 비슷한 2%대에서 정체' 보고서를 통해 "낮은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은 전망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은 세계교역 위축과 경쟁심화로 회복의 모멘텀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예상 교역액은 1조 달러 수준이다.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30만명에서 내년에 2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원·달러 환율은 1175원 수준의 약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외 불안에 따라 등락을 거듭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LG경제연구원은 "국내 경기부진은 경기순환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이고 중기적 현상"이라며 "성장률 목표를 맞추기 보다 장기적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내년 세계 경제에 대해서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지속되면서 경제성장률이 3.2%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차기태 기자

증권사, 고객에 고금리 장사

기준금리 1.75%p↓ 불구 10대 증권사 대출금리 0.2%p↓

국내 증권사들이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 여전히 신용대출 이자를 비싸게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2012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7회에 걸쳐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1.5%로 1.75%포인트 인하했다. 그럼에도 위탁매매 상위 10대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평균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8.13%에서 7.93%로 불과 0.2%포인트 내리는데 그쳤다.

신용거래융자란 증권사가 고객에게 주식 매수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10개 증권사 가운데 평균 대출금리가 가장 높은 곳은 키움증권(10.1%)이었고 대신증권(8.2%)과 미래에셋증권(8%)이 뒤를 이었다.

일부 증권사는 금리를 오히려 올렸다.

한국투자증권은 2013년까지 7.5%를 받다가 2014년부터 금리를 8%로 인상했다. 이 증권사는 올해 5월에 고작 0.1%포인트 금리를 낮췄을 뿐이다.

2012~2013년에 7.3% 금리를 적용하던 하나금융투자도 작년에 7.5%로 올린 데 이어 올해는 7.8%로 더 올렸다.

김 의원에 따르면 증권사 예탁증권담보대출 금리도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주식담보대출이라고도 불리는 예탁증권담보대출은 증권사가 투자자가 보유한 증권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10대 증권사의 주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2012년 7.32%에서 올해 6.63%로 0.69%포인트 내리는데 그쳤다.

주식담보대출 금리도 키움증권이 9.4%로 가장 높았다. 키움증권의 금리는 작년보다 0.68%포인트 올랐다.

이어 미래에셋증권(7.5%), 한국투자증권(7.2%) 등도 주식담보대출 금리가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증권사들이 최근 몇 년간 거래부진에 따른 수익성 저하를 투자자에 대한 수수료와 이자놀이로 메우고 있다"면서 "금융감독당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금리 인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차기태 기자 folium@metroseoul.co.kr



IBK기업은행, 하남시에 '참! 좋은 사랑의 밥차' 후원 권선주 IBK기업은행장(왼쪽)이 15일 경기도 하남시청에서 하남시자원봉사센터에 무료 급식차량인 '참! 좋은 사랑의 밥차'를 전달한 뒤 배식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 날 전달식에는 이현재 국회의원, 이교범 하남시장과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IBK기업은행 제공

교보생명 '지속가능성지수' 1위

2010년부터 6년 연속

교보생명이 지속가능경영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으로 선정됐다.

15일 교보생명은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지수(KSI, Korean Sustainability Index)' 생명보험부문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생명보험부문 평가가 시작된 지난 2010년부터 6년 연속 수상으로, 생보업계에서는 처음이다.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지수'는 사회적책임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26000을 기반으로 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수준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다. 한국표준협회가 지난 2009년부터 매년 평가해 오고 있다.

국내 대표 46개 업종 172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에는 경제·사회·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와 소비자, 협력사, 지역사회, 투자자, NGO 등 이해관계자 2만7000여명이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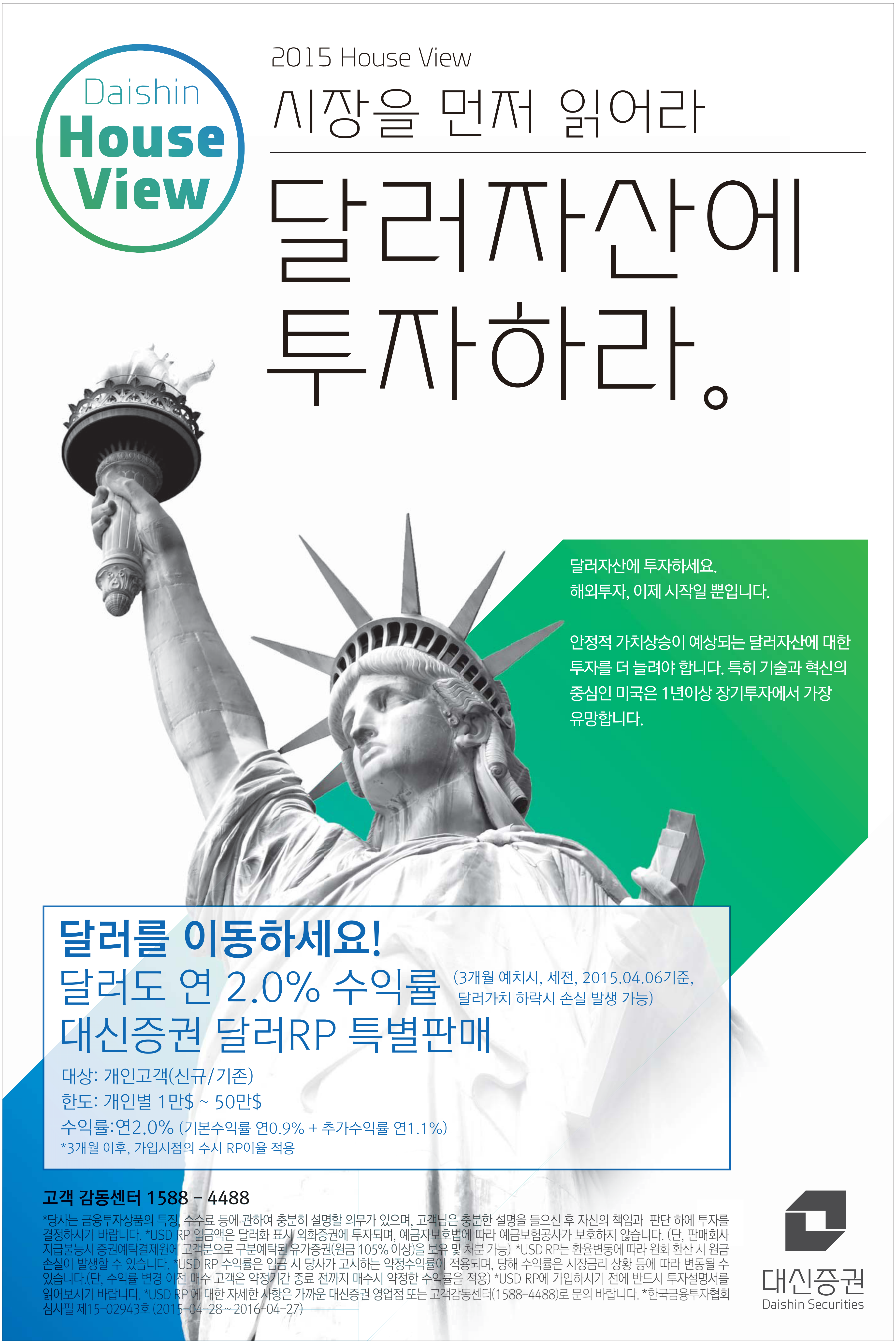
교보생명은 고객과 임직원, 투자자와 정부,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발전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생명보험업계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올해 조사에서는 소비자보호에 앞장선 점, 기업 경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 점, 고객정보 보안에 힘쓴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보생명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사후 유지서비스인 '평생든든서비스'를 추진해오고 있다. 또 고객보호 전담조직인 '고객보호센터'와 고객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고객보호담당임원'을 CEO 직속으로 배치해 고객의 소리를 직접 챙기고 있다.

이 결과 교보생명은 올해 4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4년 민원발생평가'에서 2013년에 이어 2년 연속 1등급을 받기도 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교보생명은 고객보호를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투명한 거래관행을 위한 '클린계약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문화를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도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평가에서는 고객정보보안 전담부서를 만들고 문서보안시스템, 그린존시스템 운영, 보안 USB 사용 등으로 고객정보 유출 방지에 힘쓴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보배 기자 bobae@


Daishin House View
2015 House View
시장을 먼저 읽어라
달러자산에 투자하라.
달러자산에 투자하세요.
해외투자,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안정적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달러자산에 대한 투자를 더 늘려야 합니다. 특히 기술과 혁신의 중심인 미국은 1년이상 장기투자에서 가장 유망합니다.
달러를 이동하세요!
달러도 연 2.0% 수익률
(3개월 예치시, 세전, 2015.04.06기준, 달러가치 하락시 손실 발생 가능)
대신증권 달러RP 특별판매
대상: 개인고객(신규/기존)
한도: 개인별 1만$ ~ 50만$
수익률:연2.0% (기본수익률 연0.9% + 추가수익률 연1.1%)
*3개월 이후, 가입시점의 수시 RP이율 적용
고객 감동센터 1588 – 4488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의 특징, 수수료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고객님은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자신의 책임과 판단 하에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USD RP 입금액은 달러화 표시 외화증권에 투자되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판매회사 지급불능시 증권예탁결제원에 고객분으로 구분예탁된 유가증권(원금 105% 이상)을 보유 및 처분 가능) *USD RP는 환율변동에 따라 원화 환산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USD RP 수익률은 입금 시 당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률이 적용되며, 당해 수익률은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단, 수익률 변경 이전 매수 고객은 약정기간 종료 전까지 매수시 약정한 수익률을 적용) *USD RP에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USD RP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대신증권 영업점 또는 고객감동센터(1588-4488)로 문의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5-02943호 (2015-04-28 ~ 2016-04-27)
대신증권
Daishin Securities

서울 전세 아파트 절반 3억5000만원 웃돈다

2년 새 9000만원 올라
강남 11개구 4억916만원
전국 중위값 2억70만원



가을 이사 철을 앞두고 아파트 전세값이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서울 성북구에서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아파트가 등장했다. 사진은 성북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뉴시스

전국의 아파트 전세 물량 중 2억원을 웃도는 것이 지난달 절반을 넘어섰다. 서울에서는 3억5000만원을 넘는 아파트가 50%를 기록했다. 이는 아파트 전세가 2009년 3월부터 6년 6개월(78개월) 연속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15일 KB국민은행(행장 윤종규)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의 중위 전세는 2억70만원으로 전월(1억9903만원)보다 0.8%, 전년 동기(1억7666만원)보다 13.6% 올랐다. 전국 아파트 가운데 절반은 전세가 2억70만원 이상이라는 의미다.

국민은행은 "중위가격은 주택별로 전세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가격"이라며 "전체 평균가격과는 다른 개념으로 고가주택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평균가격보다는 대체로 낮다"고 말했다.

서울 전체의 중위 전세는 지난달 3억5092만원으로 7월 3억4660만원보다 1.2%, 지난해 8월 2억9513만원보다 18.9% 뛰었다. 2년 전 2억6424만원보다는 약 9000만원(32.8%) 오른 가격이다.

이는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 세입자가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 재계약을 하려면 평균치로 따질 때 지출분을 제외한 한 해 순수입이 최소 4500만원은 돼야 한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 11개구(한강 남쪽 서울)가 가장 비싸고 상승폭도 가팔랐다.

강남 11개구는 지난 7월 4억335만원을 기록하며 처음 4억원을 넘은 데 이어 8월에는 4억916만원으로 전월보다 1.4%, 전년 동기 3억3726만원보다 21.3% 올랐다.

강북 14개구도 강남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지난달 2억8151만원으로 전월(2억7896만원)보다 0.9%, 전년 동기 2억4492만원보다 14.9% 올랐다.

상승률로는 인천이 8월에 전월보다 1.4%, 전년 동기 대비 17.9% 올라 강남 11개구 다음으로 높았다.

수도권은 2억5749만원으로 전월보다 1.1%, 전년 동기 대비 16.7% 상승했다.

전세 강세는 전세의 월세 전환이 초저금리 상황과 맞물려 가속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에서는 서초·강남·송파·강동 등 강남 4구에서 잇따라 추진된 재건축 사업이 전세 급등과 전세난 심화를 불러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LH, 세종시에 첫 국민임대 공급

전용 29~46㎡ 1684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대표 이재영)는 세종시 종촌동 1-3생활권에 세종시 최초의 국민임대아파트 1684가구를 공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전용면적 29㎡ 682가구, 36㎡ 620가구, 46㎡ 382가구로 구성된다. 임대료는 29㎡가 보증금 980만원에 월 임대료 15만4000원, 36㎡는 보증금 1280만원에 월 19만7000원, 46㎡는 보증금 2750만원에 월 25만7000원이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세대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어야 하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331만4220원(3인 이하 가구) 이하, 부동산가액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2489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세종시 거주자가 1순위이며 대전 유성구와 공주·청주·천안시 거주자가 2순위다. /박상길 기자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실거래가 공개

오피스텔 매매·전월세도 포함

앞으로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 오피스텔 매매·전월세도 실거래가가 공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으로 한정된 실거래가 공개 대상을 17일부터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 오피스텔 등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2007년 6월 이후 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 거래 약 50만건과 2006년 1월 이후 오피스텔 매매·전월세 약 39만 건이다. 공개항목은 거래금액, 단지명, 거래일자, 면적, 층 등으로 기존에 아파트 등에 대해 공개하던 항목과 동일하며 개인정보는 제외된다. /박상길 기자

롯데건설

'운정 롯데캐슬 파크타운 2차' 18일 견본주택 오픈 분양 돌입

롯데건설(대표 김치현)은 18일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A27블록 '운정 롯데캐슬 파크타운 2차'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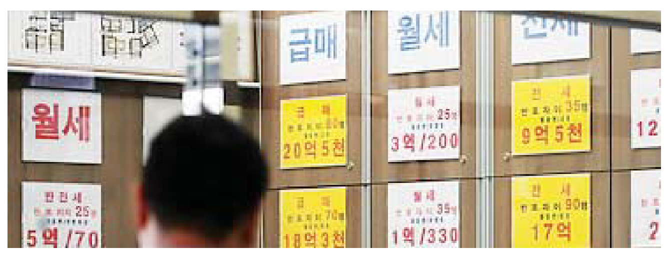
운정 롯데캐슬 파크타운 2차는 지하 2~지상 24~29층 11개 동 규모에 전용면적 59~91㎡ 1169가구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별로는 ▲59㎡A 249가구 ▲60㎡B 210가구 ▲60㎡C 220가구 ▲84㎡A 163가구 ▲84㎡B 115가구 ▲91㎡ 212가구로 구성된다.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85㎡이하의 중소형 타입이 전체의 81.8%를 차지하고 있다. /박상길 기자

반포동, 압구정동 제치고 '부촌 1번지'

20억 넘는 아파트 시가총액 2208억850만원으로 '최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전세·매매가 시세표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이 20억원 이상 아파트 시가 총액에서 전국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최고의 부촌으로 올라섰다.

15일 리얼투데이(대표 대표 김운철)가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실거래가 총액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상반기(1~7월) 서울시의 동 별 20억원 이상 아파트 시가총액에서 서초구 반포동은 2208억85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서울시 전체 20억원 이상 아파트 시가총액의 31%가 넘는 금액이다. 그간 대표적인 부자동네라고 꼽히던 강남구 압구정동(1106억1300만원)보다도 두 배가량 많은 수치다.

반포동이 압구정동을 넘어선 최고 부촌이 된 것은 빠른 재건축 속도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9월 이후 반포동(1579)과, 잠원동(1201), 서초동(593) 등의 재건축 물량은 3373가구에 달한다. 내년에도 잠원동에는 475가구 물량 공급이 예정돼 있다.

반포주공2단지를 재건축한 반포래미안퍼스티지, 반포주공3단지를 재건축한 반포자이 등의 새 아파트와 재건축을 앞둔 반포 주공1단지 등이 반포의 가치를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상반기 래미안퍼스티지 169㎡형이 28억5000만원, 반포주공1단지 140㎡이 25억5000만원에 거래되는 등 20억원 이상의 아파트가 92건 거래됐다. 압구정동은 47건, 도곡동은 28건 수준이다.

/박상길 기자

현대건설, 동탄신도시 불법폐기물 매립 논란

"공사기법상 섞인것" 해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대표 이재영)가 발주한 동탄2신도시 4-2공구 구간에서 불법 폐기물이 발견된 가운데 경기도 화성시와 경찰의 현장조사가 임박하자 시공사인 현대건설(대표 정수현)이 불법폐기물을 빼돌리다 발각됐다.

15일 화성시청(청장 채인석)에 따르면 해당 구간의 개발을 맡은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택지조성공사 과정 중 터널 공사에서 나오는 폐쇼크리트(강섬유가 포함된 콘크리트)를 서희건설의 아파트가 들어설 땅 바로 밑에 파묻었고 화성시와 경찰의 현장조사가 임박하자 몰래 파내 밖으로 반출하려다 적발됐다.

화성시 측은 "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진 않았지만 통상의 선별 능력에 따라 폐기물 추정량이 적게 나오면 시공사 측에 책임을 덜 물게 한다"며 "현대건설 측이 추정량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의 출근일이 아닌 일요일에 몰래 장비를 투입해 폐기물을 반출하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화성시청은 지난달 말 현대건설을 불법 폐기물 매립 혐의로 화성경찰서에 고발했다. 화성시와 경찰 측은 해당 공사 구간에 1000톤 가량의 불법폐기물이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측은 공사기법상 극미량의 공사 폐기물이 섞여 들어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택지조성공사 과정에 터널 공사에서 나오는 쇼크리트를 96% 제거했으며, 일부 성토 작업 중에 들어간 것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제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길 기자

신동빈, 호텔롯데 대표 등재

신격호와 호텔롯데 공동대표
신동주, 모든 韓 계열사 해임

신동빈(61·사진) 롯데그룹 회장이 한국롯데의 지주회사격인 호텔롯데의 대표이사에 등재됐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 10일호텔롯데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로 등기됐으며 이날 이같은 내용이 공시됐다.

같은 날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사내이사에서 해임됐다. 이로써 신 전 부회장은 모든 한국 롯데 계열사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신격호 총괄회장(94)은 공동대표로 남았다.

업계 관계자는 "신 회장이 롯데홀딩스와 L투자회사의 대표로 선임됐을 때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특별히 변하는 것은 없다.

다만 신동주의 이름만 지워졌을 뿐"이라고 말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11일 부산 해운대구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부산지역 대학교·고등학교 취업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미소를 짓고 있다. /연합뉴스

신 회장은 지난 6월 30일 호텔롯데의 지분 72.65%를 가진 'L투자회사'에 대표로 선임됐으며 7월 16일에는 단일 최대주주인 롯데홀딩스(19.07%)의 대표에도 이름을 올렸다.

사실상 한·일 롯데 모든 계열사에서 물러난 신 전 부회장은 지난달 17일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 회장의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지만 패했다.

신 전 부회장은 '법적대응'까지 나서겠다고 엄포했지만 현재까지 어떠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편 호텔롯데 임시주총에서는 신 전 부회장의 해임과 신 회장의 대표선임 건, 기업공개(IPO)를 위한 주식분할과 정관변경, 신규사외이사 선임 등의 안건이 통과됐다.

사외이사로는 조동성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와 강호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신규 선임됐다.

조교수와 강 교수는 박동기 호텔롯데 월드사업부 대표와 함께 감사위원으로 선임됐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aT 수입쌀 저가판매에 국내쌀 '휘청'

규정 위반 저가판매 의혹
공매 입찰 최저가 낮춰

농수산유통공사(aT·사장 김재수)가 규정을 어겨가며 밥쌀용 수입쌀을 저가로 판매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분석한 '수입밥쌀용 쌀 공매가격'에 따르면 aT는 2014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미국산 1등급, 중국산 1등급 밥쌀의 입찰 최저가를 지속적으로 낮춰왔다.

aT는 미국산 1등급 쌀의 경우 지난해 1790원이었던 입찰 최저가를 이달 11일에는 1350원까지 낮췄다. 중국산 1등급은 지난해 1월 1596원에서 이달 11일 1220원까지 떨어졌다.



신 의원은 수입쌀 공매 입찰 최저가를 낮춰서 판매하는 것은 정부비축사업관리규정 제24조 '판매시기 및 가격'에 따라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령에서는 정부비축농산물의 판매가격을 당해 농산물 가격의 70% 이상으로 판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산 1등급 쌀의 경우는 지난달을 제외하고 2014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산 쌀 가격 대비 60% 초·중반 가격에 거래됐다.

수입쌀의 가격 하락은 국내 쌀 가격하락을 유도한다. aT가 수입 밥쌀을 저가에 내놓는 행위는 국산 밥쌀의 가격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신 의원은 "정부가 쌀시장을 개방하면서 밥쌀용 쌀 의무수입 규정을 삭제해놓고 국내 수요처를 핑계로 수입 밥쌀용 쌀을 허가했다.

또 수입쌀의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최저가를 낮추는 처사는 잘못된 것"이라며 "수입쌀 저가 판매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롯데, 기업문화개선위원회 출범

롯데그룹(회장 신동빈)은 15일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업문화개선이원회'의 출범식을 갖고 내외부 위원들이 실질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문화개선위원회는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TFT에 이은 두 번째 기업 혁신조직이다.

일전 신동빈 회장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롯데의 순환출자고리를 해소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장담한 것이 반영된 결과다.

롯데 측은 기업문화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변화하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공동위원장인 이인원 롯데정책본부 부회장,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등 내·외부인원과 실무진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참석한 이경묵 교수는 "이번 일을 계기로 롯데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 윤리적이고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회사, 이해관계자들에게 사랑받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인원 롯데정책본부 부회장(오른쪽),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왼쪽)

/김성현 기자



독일 슈즈브랜드 가버, 2015 F/W 신상품 15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모델들이 독일 여성 슈즈 브랜드 가버(Gabor)의 2015 가을·겨울 구두 신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가버는 메르켈 독일 총리가 애용하는 브랜드로 루프트한자, 핀에어의 승무원 구두로도 유명하다. /연합뉴스

쌀 전업농가 후계 인력 '적신호'

쌀 전업농가에 후계자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전업농의 연령분포 및 승계인력' 현황에 따르면 2014년 12월 기준 6만9000명의 전업농중 60세 이상의 고령층이 2만3000명으로 33%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40세 이하의 전업농은 2900명으로 전체의 4.2%에 불과하다.

전업농은 국가 육성 제도로 농업 발전의 핵심전략 중 하나다.

세븐일레븐, 세계군인 체육대회 후원

세븐일레븐(대표 정승인)은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 체육대회'의 공식 후원을 위한 후원 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세계군인 체육대회는 올림픽, 유니버시아드와 함께 세계 3대 스포츠 행사다. 경북문경 세계군인 체육대회는 내달2일부터 11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세븐일레븐은 이번 체육대회 기간 개·폐막식이 열리는 주경기장과 3개 선수촌에 각각 임시 편의점을 운영해 선수와 관계자,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AK몰, 가을 스타일링 대전… 최대 79% 할인

AK플라자(대표 정일채)가 운영하는 종합온라인쇼핑몰 AK몰은 17일까지 가을상품을 최대 79%까지 할인하는 '가을 스타일링 대전'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AK몰은 리스트 오버핏 롱 트렌치 코트를 18만600원에 닥스 울 혼방 롱 스카프는 8만4150원, 프랑코페라로 밍크 머플러 8만750원에 판매한다.

롯데면세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롯데면세점(대표 이홍균)은 영국표준협회(BSI)로부터 국내외 전 지점에 대한 ISO27001(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인증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은 ▲오프라인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운영 ▲해외점 정보보호 관리 ▲고객 개인정보 관리 등 회사 정보관리와 관련한 모든 활동에 대해 국제 표준을 준수한 기업에게만 준다.

이홍균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이번 ISO27001 인증으로 롯데면세점은 고객 정보 자산과 경영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 관리하는 국내 유일의 면세점임을 객관적으로 인정 받았다"고 말했다.

티몬, 피부 친화적 '올곧은 물티슈' 단독 출시

티몬(대표 신현성)은 유아용품 전문기업 '보령메디앙스'의 신제품 '올곧은 물티슈'를 단독 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티몬에 따르면 올곧은 물티슈는 검은콩·두유·율무·흑미·참깨 등 오곡추출물로 이뤄진 식품성 복합성분이 포함돼 아기의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것이 특징이다.

또 피부 친화력이 우수하다고 알려진 히알루론산을 첨가해 보습력이 강화됐다.



어린이 위한 '차례상 차리기 재현' 농협유통(대표 조영조)은 추석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전통 차례상 문화를 소개하고 차례상 차리기 재현 행사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농협 측은 이번 행사로 어린이들이 추석 명절의 의미를 되새김하고 어동육서·홍동백서·조율이시 등 차례상 차리는 방법과 절하는 방법 등 차례를 지내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전했다. /농협유통 제공

커피전문점 위생불량 적발 3년새 2배↑

대형 커피전문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가 최근 3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브랜드별로는 카페베네가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0대 커피전문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는 2011년 37건에서 2014년 81건으로 증가했다.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적발건수는 307건에 이른다.

브랜드별로는 카페베네가 62건(20.2%)로 가장 많았다.

풀무원 'KSI' 종합식품부문 6년 연속 1위

풀무원(대표 남승우)이 6년 연속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지수 종합식품부문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풀무원은 한국표준협회(KSA) 주최로 15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팰리스호텔 두베홀에서 열린 '2015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대회'에서 종합식품부문 지속가능성지수(KSI) 종합식품부문 1위 기업에 선정됐다.

'허니통통' 출시 8개월만에 500억원 돌파

해태제과(대표 신정훈)는 AC닐슨코리아 기준으로 전체 허니스낵류 가운데 허니통통이 5~7월 3개월 연속 매출 1위를 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허니통통은 5월 51억원, 6월 57억원, 7월 52억원 등 유일하게 50억원대 매출을 유지하며 3개월 연속 1위 자리를 차지했다.

허니통통은 누적 매출(521억원)에서도 8개월 만에 500억원 돌파라는 대기록을 세웠다. 종전 기록은 2000년 출시한 롯데자일리톨의 14개월이다.

BBQ, 가맹점주 지원 '솔개 프로젝트' 실시

제너시스BBQ(회장 윤홍근)가 지난 14일 경기도 이천 치킨대학에서 가맹점 매출 신장·복지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BBQ솔개 프로젝트' 출범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

제너시스BBQ는 BBQ솔개 프로젝트 통해 매출 상위 가맹점주가 저조한 매출을 보이는 매장을 지도해 주는 '패밀리 멘토링'과 패밀리 간 상호 모니터링이 가능한 '패밀리 모니터링' 제도 등을 도입했다.

락앤락, 수제 쿡웨어 '투핸즈 살롱' 홈쇼핑 런칭

락앤락은 추석을 앞두고 17일 오후 8시40분부터 현대홈쇼핑에서 고급 수제 주물 쿡웨어인 '투핸즈(Two Hands) 살롱 5종 세트'를 런칭한다고 15일 밝혔다.

투핸즈 살롱 5종 세트는 공정의 70~80%가 정밀한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하루에 소량만 생산되는 고급 수제 주물 쿡웨어 라인이다.



까다로운 제조과정을 거쳐 내부 구조가 균일하고 안정적으로 응고돼 조리 시 열이 빠르고 균일하게 전달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부활 신호탄 된 '짜장라면'

농심·팔도·오뚜기 등 침체된 시장 성장세 주도

'농심 짜왕'을 필두로 '팔도 짜장면'과 '오뚜기 진짜장' 등 짜장라면이 침체일로의 라면시장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

15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지난 6개월간(4~8월) 전체 라면 평균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8.5% 하락했다.

월별로 보면 4월 전년 같은 기간대비 19.1% 역신장한데 이어 5월 전년비 14%, 6월 18.7%, 7월 8.8% 감소를 기록하며 매출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나 8월 들어 9.4% 신장세로 돌아섰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측은 "지난 4월 농심 짜왕 출시에 이어 7월 말 오뚜기 진짜장, 팔도 짜장면 등이 시장에 선보이고 8월 이들의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라면 시장 전체 매출을 성장세로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농심 제공

실제로 지난 6개월간 짜장라면 매출은 4월 전년비 1.2% 상승세를 기록한 이후 5월 26.1%, 6월 139.8% 상승세를 보이다 3사의 경쟁이 본격화 된 7월부터 182.8% 급신장해 8월 187.1%까지 매출이 상승했다.

짜장라면의 이 같은 선전은 라면 매출 순위도 바꿨다. 4월 매출액 기준으로 봉지라면 순위는 '농심 신라면'이 1위 자리를 지킨 가운데 '농심 올리브 짜파게띠', '팔도 비빔면', '농심 안성탕면', '오뚜기 진라면 매운맛', '농심 너구리 얼큰한맛', '오뚜기 진라면 순한맛', '삼양라면, 농심 우육탕면', '농심어짬봉' 순이었다.

그러나 8월 짜장라면이 라면 시장 매출을 주도하면서 농심 짜왕이 신라면의 자리를 빼앗으며 1위를 차지했다. 이어 팔도 짜장면과 오뚜기 진짜장이 6위와 7위에 오르면 라면 순위 변동이 크게 일어났다.

특히나 여름철 라면시장은 찬물에 면을 씻어 새콤달콤한 소스를 첨가한 비빔면이 대세였지만 올 여름에는 비빔면이 짜장라면의 강세에 밀렸다. 7월, 8월 성수기 동안 팔도 비빔면이 각각 4위와 8위를 기록한 것 외에 기타 비빔면은 10위권 안에서 찾아볼 수 없다.

지난 4월 출시된 농심 짜왕은 경쟁사들의 공세 속에서도 월 매출 120억원을 기록을 중이다. 너구리 라면보다 두배 두꺼운 굵은 면과 간짜장 맛을 살린 스프로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았다는 평가다. 농심은 짜왕의 여세를 몰아 짬뽕라면 출시도 검토 중에 있다.

농심 관계자는 "경쟁사들이 짜장라면 시장에 뛰어들어 경쟁이 치열해졌지만 매출에 영향은 없었다. 연간 1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제품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팔도 짜장면은 진짜 춘장에 양파·감자·돼지고기 등 큼직한 건더기를 넣은 액상 짜장소스로 인기를 끌면서 8월 한 달간 2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그러나 액상 짜장소스의 생산 어려움으로 추가 주문에도 생산 물량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에 팔도는 성수기가 지난 비빔면의 생산 라인을 통해 짜장면 물량을 늘려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오뚜기 진짜장도 춘장과 양파를 센 불에 볶아 불 맛을 잘 살렸다는 평가 속에 8월 한 달간 25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CJ "동부팜한농 인수 예비입찰 참여"

종자 연구개발 강화 계획

CJ제일제당이 몸값 8000억원에 달하는 동부팜한농의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CJ제일제당은 동부팜한농 인수를 통해 종자 연구개발을 강화할 계획이다.

15일 CJ제일제당은 "동부팜한농 인수 예비입찰에 참여했다"며 "현재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지난 3월 식품 원재료의 종자를 연구개발하는 CJ브리딩을 설립하는 등 종자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준비를 해 왔다. 업계는 동부팜한농이 농약, 비료, 종자 등 농자재 분야 국내 최대 기업으로 매각 가격은 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최고경영자인 이재현 회장의 부재에 인수합병(M&A) 결정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단기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해외시장 개척이나 대규모 M&A 등 과감한 투자 집행에 신속한 의사 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LG화학도 동부팜한농 예비입찰에 참여했다는 공시를 냈다. 동부팜한농 매각 작업이 완료되면 동부그룹 구조조정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다. /정은미 기자

매일유업 "새로운 식문화 창조… 글로벌 기업 도약 할 것"

2020년 매출 3조2000억

매일유업(회장 김정완)이 2020년 매출 3조2000억원, 영업이익 2000억원(관계사 포함) 목표 달성을 통해 2025년까지 초일류 건강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매일유업은 이날 전라북도 고창군 매일유업 상하공장·농원에서 10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모어 덴 푸드 비언드 코리아(More than Food, Beyond KOREA)'라는 비전을 발표했다.

이 비전은 '새로운 식문화를 창조하며, 글로벌로 나아간다'라는 의미다. 매일유업이 국내 유제품 생산기업을 넘어 식생활 문화까지 선도해 전 세계 식문화 트렌드를 주도하는 종합식품·서비스 기업으로 도약하자는 의지를 담고 있다. 또 4대 핵심가치로 창의, 소통, 열정, 상생을 제시했다.

한가위 정나눔 부담 줄인다

더페이스샵

25일까지 추석선물세트 등 품목별 20~50% 할인혜택



LG생활건강(대표 차석용) 더페이스샵은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16~25일까지 추석 선물세트와 클렌징, 색조 제품 등을 할인하는 '한가위 세일'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더페이스샵은 이번 행사 기간 중 전국 매장에서 제품 구매 시 품목별로 50~2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명절 선물을 준비하는 소비자를 위해 구성한 스페셜 선물세트에는 30%의 할인율을 적용했다.

대표 선물세트 중 '망고씨드 2종 기획 세트'는 천연 망고씨앗 버터 성분을 함유해 건조한 피부에 풍부한 보습감을 주는 토너·로션 2종 세트다. 매끄럽고 촉촉한 피부를 원하는 20~30대 여성에게 선물하기 좋다.

남성 프리미엄 한방 화장품 세트 '명한 미인도 천삼송이 포맨 탄력 2종 세트'는 1등급 6년근 홍삼과 자연산 송이 등 프리미엄 원료가 건조하고 푸석한 남성의 피부에 영양을 집중적으로 공급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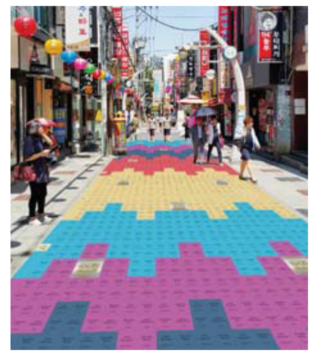
이외에도 피부가 예민해지기 쉬운 환절기에 꼼꼼하고 순한 클렌징을 도와주는 제품에는 50%의 높은 할인율을 적용했다. 신제품 'CC 쿠션'을 비롯해 '콜라겐 앰플 립스틱', '페이스 잇 파워 퍼펙션 비비크림' 등 색조 제품도 30% 할인된 가격에 만나 볼 수 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당신의 이름을 한국에 새겨보세요"

한국관광공사

글로벌 캠페인 '상상길' 오늘 창원 예술촌서 개막


상상길 가상모습.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는 새로운 지역관광 명소 조성을 통한 한국관광 홍보와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해 오는 16일 12시, 글로벌 캠페인 '상상길' 개막식과 창원시(시장 안상수)와의 업무협약식을 창원 창동예술촌 내 상상길에서 개최한다.

2015 글로벌 캠페인 'Write Your Name in Korea' (당신의 이름을 한국에 새겨보세요)는 창원시에 있는 창동예술촌 내 특정 구역에 본인의 이름을 새기는 것이다. 전 세계 해외 관광객이 한국에 대한 여러 가지 상상을 실현하는 첫 단계다.

이러한 '상상길'에는 국내외 유명 스타들과 나란히 2만3000여개의 한국을 사랑하고 꿈꾸는 이들의 이름이 새겨진다.

현재까지 이름을 새기길 원하는 캠페인 온라인 참여자 수만 30만 명을 넘어섰으며 페이스북 캠페인 소개 포스팅 '좋아요' 50만, 댓글 5000개, 공유 6000개가 넘는 등 해외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16일에는 '상상길'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되는 개막식이 펼쳐진다.

관광공사 브랜드마케팅팀 우병희 팀장은 "올해 글로벌 캠페인은 지역관광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관광마케팅을 위해 계획되었다"며 "상상길을 통해 앞으로 이곳이 지역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2015 글로벌 캠페인은 12월까지 이어지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관광 브랜드 홈페이지(www.imagineyourkore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치선 기자

외과전문의 협진… 초기암, 수술 없이 완치

이대목동병원

우수내시경실 인증 획득 응급콜서비스 당일 시술



이대목동병원 소화기내시경실과 건강증진센터가 우수 인증을 나란히 획득했다.
/이대 목동병원 제공

이대목동병원(병원장 : 유경하) 소화기내시경실과 건강증진센터가 2015년 '우수내시경실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

우수내시경실 인증은 국내 소화기내시경 영역의 질적인 향상과 의료 환경 개선의 취지로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이 보증하는 질 관리 제도다.

내시경 인력, 시설과 장비, 검사 과정, 성과지표관리, 감염과 소독의 5개 영역, 72개 항목에서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대한소화기내시경 연구재단이 권장하는 질 관리와 관련된 지침을 준수해 양질의 검사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증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대목동병원 내시경실은 내시경 전문의가 식도, 위장, 소장과 대장질환의 진단을 위한 일반적인 내시경 검사뿐만 아니라, 정확한 진단과 병기 판정을 위해 초음파내시경, 확대내시경 검사 등의 진단내시경을 시행하고 있다.

또 치료내시경으로 대장 용종 절제술과 조기 위암과 조기 대장암에 대한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을 시행해 외과 수술 없이 초기암을 완치시키고 있다. 또 소화기내과, 외과 전문의와 전문간호사로 구성된 최고의 의료진이 긴밀한 상호 협조를 통해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대목동병원 내시경실에서는 직장인이나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토요일과 오전 8시부터 내시경 검사를 하고 있다. 급식하고 오는 환자들에게는 내시경 검사를 당일 바로 해주는 신속 진료 시스템도 운영 중이다.

또한 협력 병의원에서 용종이 발견되거나 출혈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진료협력센터 응급콜서비스를 이용하면 담당 교수들에게 바로 연락이 가능하고 당일 시술 또는 응급조치가 가능하다.

정혜경 소화기내시경실장은 "2012년 우수내시경실 인증 획득에 이어 올해 재인증 획득으로 이대목동병원 소화기내시경실과 건강증진센터 내시경실이 뛰어난 의료진과 우수한 시설, 장비, 감염관리 등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더욱더 철저한 감염관리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내시경실을 찾는 모든 환자들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치선 기자 chisunti@

2명 중 1명 배변중에도 휴대폰 '만지작'

대한대장항문학회

10~60대 2000명 설문조사

한국인 2명 중 1명은 배변 중에도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대장항문학회(이사장: 박규주)는 10대부터 60대까지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평균적인 배변 습관과 대장 건강의 연관성을 발표했다.

대한대장항문학회는 조사 전문기관 마크로밀 엠브레인과 2015년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약 5일간 서울과 6대 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16~69세 남녀 2000명 대상으로 배변 활동과 인식에 관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다.

한국인은 10명 중 7명은 하루에 1회 이상 배변한다고 응답했다. 주로 오전6시부터 오후 12시 사이, 배변을 위해 평균 6.1분 동안 화장실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10명 중 3명은 변비 증상을 경험했고, 10명 중 4명은 배변 후에도 변을 덜 본 것 같은 '잔변감'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 2명 중 1명은 배변 중에도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응답에서는 해당 비율이 10명 중 8명에 달했다. 또 10명 중 8명은 원활한 배변 활동과 삶의 질이 관계가 있다고 답했고, 10명 중 6명은 매일 일정한 시간 하루에 한번 배변을 하는 것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비가 있는 응답자의 경우 배변을 위해 화장실에 머무르는 시간 평균 8.4분으로 변비가 없는 사람에 비해 평균 3.2분 더 길고, 10명 중 3명은 10분 이상 배변을 위해 화장실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비가 있는 응답자 10명 중 7명이 잔변감을 호소했으며, 항문질환 진단율은 변비가 없는 응답자보다 7.3%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변비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병원 진찰이나 변비약과 같은 방법 보다는 유산균 음료 (55.6%), 물(49.6%), 과일·채소(42.4%) 등 음식물 섭취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았다.

대한대장항문학회 박규주 이사장은 "불규칙한 식사 등 일상 생활에서 흔히 간과하는 습관들이 쌓여 원활한 배변활동을 저해하고, 결국 대장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하루에 한번 이상 배변을 해야한다는 강박과 쾌변에 대한 욕구로 무리하게 오래 화장실에 앉아 있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문의:대한대장항문학회 웹사이트(http://www.colon.or.kr), 학회 사무처(02-2040-7736)

/최치선 기자

star bag



9개월 만의 신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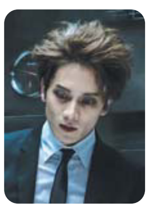
밴드 **넬**이 오는 18일 자정 새 싱글 '스타쉘(Star Shell)'을 발표한다고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가 15일 전했다. 넬의 신곡 발표는 2014년 싱글 '청춘연가'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취향저격' 차트 석권

YG 신인 그룹 **아이콘**이 데뷔 싱글 '취향저격'으로 음원 차트 1위를 석권했다. 15일 자정 공개된 아이콘의 '취향저격'은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멜론, 엠넷, 벅스 등 총 8개 음원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뱀파이어 변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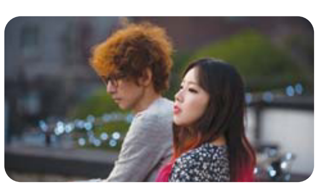


배우 **지성**이 임상수 감독의 단편영화 '뱀파이어는 우리 옆집에 산다'에서 뱀파이어로 출연한다. '뱀파이어는 우리 옆집에 산다'는 제20회 부산국제영화제 초청작 '컬러 오브 아시아-마스터스'를 통해 첫 선을 보인다.

단막극 주연 발탁



가수 **산다라박**이 단막극 주인공이 됐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산다라박이 KBS 단막극 '미싱코리아'에 주인공으로 캐스팅돼 미스코리아의 북한 대표로 출연한다"고 15일 전했다.



정규 1집 내달 발표

어쿠스틱 듀오 **꽃잠프로젝트**가 내달 6일 정규 1집 '룩 인사이드(Look Inside)'를 발표한다. 총 10곡을 수록한 앨범으로 멤버 거정이 작곡을 맡았다. 또 다른 멤버 이지는 작사와 보컬로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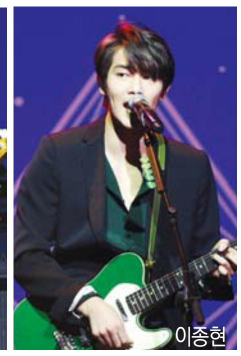


데뷔 6년차 밴드의 도전·변화·성장

정규 2집 '투게더' 낸 **씨엔블루**


정용화


이정신


이종현


강민혁

씨엔블루(정용화·이정신·이종현·강민혁)는 올해로 데뷔 6년차를 맞이했다. 출발부터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지금은 일본과 중국에서도 사랑받는 밴드가 됐다. 콘서트 투어와 개인 활동 등으로 바쁜 스케줄을 보낸 씨엔블루는 지난 14일 자정 정규 2집 '투게더(2gether)'를 발매하고 국내 활동을 재개했다. 1년 7개월 만에 선보이는, 씨엔블루의 도전과 성장을 확인할 수 있는 앨범이다.

지난 14일 오후 서울 악스코리아에서 열린 쇼케이스에서 씨엔블루를 만났다. 새 앨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다. 타이틀곡 '신데렐라' 무대는 전에 없던 흥겨운 음악으로 취재진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작사, 작곡에 참여한 정용화는 "작업실에서 뒹굴거리다 '신데렐라'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얼마 뒤 신데렐라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됐다. '하늘의 계시'라는 생각으로 노래를 썼다"고 에피소드를 털어놨다.

총 11곡이 수록된 이번 앨범은 대중적인 음악과 씨엔블루가 하고 싶은 음악을 결합시켰다. 장르도 다양해졌다. 일렉트로닉, 레게, 칠아웃, 디스코 등 여러 장르를 씨엔블루만의 색깔로 소화했다. "이번 앨범은 베이스 녹음하면서도 엄청 재미있었다"는 이정신의 말처럼 작업 과정에서 느낀 즐거움이 고스란히 앨범에 담겨 있다.

정용화와 이종현의 자작곡들로 앨범을 채운 것도 성장의 증거다. 밴드 활동으로 쌓인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진짜 연주를 해야 밴드'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그런 분들의 성향에 맞춰 곡을 썼죠. 하지만 이번 앨범은 조금 더 우리답게 악기를 연주하고 변화를 주려고 했어요. 처음 들으면 리얼한 악기 연주처럼 들리지는 않겠지만 라이브로 들으면 더 즐거울 수 있는 노래를 만들려고 연구했어요." (정용화)

> 대중성·씨엔블루 색깔 섞은 앨범
> '신데렐라' 등 자작곡 11곡 수록
> 라이브 무대로 편견 깨고 싶어
> 오래 음악하는 밴드가 이상향 ”

씨엔블루는 데뷔와 동시에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다. 아이돌이 밴드를 한다는 편견 때문이었다. 표절처럼 뜻하지 않은 논란도 있었다. 힘겨운 상황 속에서 씨엔블루는 음악으로 자신들의 색깔을 보여주는 길을 택했다. 쉼 없는 콘서트로 팬과 소통했다. 멤버들도 작사, 작곡에 꾸준히 참여하며 음악적 역량을 쌓았다. 밴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한 만큼 이제는 대중이 지닌 편견에 맞서 자신들의 음악을 들려주고 싶다.

"데뷔 초반에는 겁이 많이 났어요. 무대에 서는 것도 정말 떨렸고요. 하지만 지금은 앨범이 나오고 공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즐겁습니다. 록페스티벌을 비롯해 어떤 무대든 최선을 다하면 저희에 대한 인식을 깰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했어요. 라이브를 보여드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는 게 힘들기는 해요. 그럼에도 라이브로 저희 음악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정용화)

20대의 빛나는 순간이 지나가고 있는 씨엔블루는 하고 싶은 것도 꿈꾸는 것도 많다. "점잖은 이미지지만 그 안에는 일탈을 꿈꾸는 마음도 있다"는 정용화의 말에서 반짝이는 청춘의 단면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음악을 향한 꿈만큼은 진중하다. "이상적인 밴드요? 오래 활동하면서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현)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2016년, 픽사·디즈니 신작과 함께

'굿 다이노' '주토피아' 1·2월 연이어 개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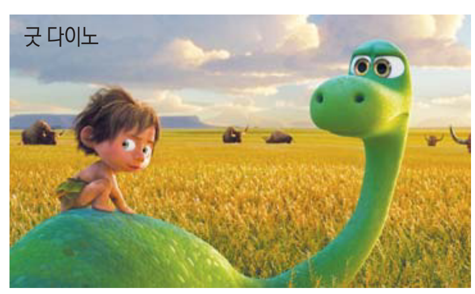
픽사와 디즈니가 2016년 시작과 동시에 신작을 연이어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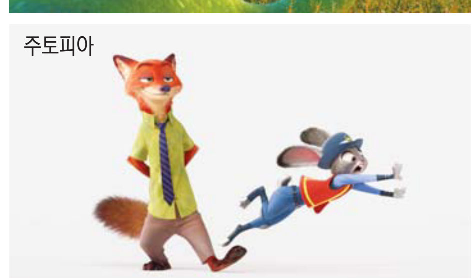
픽사 애니메이션 신작 '굿 다이노'는 내년 1월 국내 개봉을 확정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웠던 소년과 공룡이 가족보다 더 깊은 친구가 되는 과정을 그렸다.

픽사는 올해 '인사이드 아웃'으로 부활에 성공했다. '굿 다이노'는 픽사의 16번째 작품이다. '몬스터 대학교' '인크레더블' 등에서 활약해온 성우 출신 피터 손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인사이드 아웃'을 각색한 멕 르포브가 각본을 맡아 생명력 있는 스토리를 완성했다.

내년 2월에는 월트 디즈니 스튜디오의 새 애니메이션 '주토피아'가 개봉한다. 사람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동물만의 세상 주토피아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라푼젤'의 바이론 하워드 감독과 '주먹왕 랄프'의 리치 무어 감독이 공동으로 연출을 맡았다. '빅 히어로' '주먹왕 랄프'의 각본가들도 함께 했다. 지니퍼 굿윈, 제이슨 베이트먼, 샤키라 등 호화 출연진이 목소리를 연기했다. /장병호 기자


굿 다이노


주토피아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콘서트 오페라 마술피리
R석 공연티켓 1+1 판매중
인터파크 티켓에서 콘서트 오페라 마술피리 R석 티켓 1장 구입시 1장 무료!
(소진시 행사 종료, 1인 유료티켓 2매까지 구입가능)
1+1
온 가족이 함께하는
콘서트 오페라 〈마술피리〉
WOLFGANG AMADEUS MOZART
DIE ZAUBERFLÖTE
타미노 나승서 파미나 박미자 밤의여왕 오미선
파파게노 김동섭 자라스트로 장영근 파파게나 김문희
모노스타토스 김동섭 1st 시녀 김윤지 2nd 시녀 이미선 3rd 시녀 류현수
변사 김대엽 1st 무사 최경일 2nd 무사 김준한 천사 이민지 신소연 안지혜
지휘 서희태 연출 이의주 연주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합창 메트오페라합창단
2015. 9. 19(토) 7:30PM / 9. 20(일) 5PM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Millennium Symphony Orchestra 후원 빙그레
예매 세종문화티켓 02-399-1000, 인터파크 1544-1555
티켓 VIP 7만원 R 5만원 S 3만원 A 2만원 B 1만원 공연문의 02-6292-9370

울타리 밖 세상과 마주한 아이들

film review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 메이즈 러너2

SF 게임 형식의 성장담 주체적인 성장 다뤄





어른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 홀로 서는 것이다. 그 누구의 보호도 받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은 곧 세상의 잔혹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진리다. 그러나 아이들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무작정 세상을 향해 내달린다.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성장통이 필요한 이유다.

'메이즈 러너' 시리즈는 SF 게임 형식으로 담은 일종의 성장담이다. 게임처럼 스테이지를 뛰어넘을수록 성장해 가는 소년, 소녀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이는 '메이즈 러너'만의 고유한 방식은 아니다. 우리는 이미 아이들의 성장담을 판타지 장르로 승화시킨 작품을 만난 바 있다. '해리 포터' 시리즈가 그렇고 '헝거 게임' 시리즈가 그렇다.

'메이즈 러너' 시리즈의 매력은 다른 시리즈와 굳이 차별점을 두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아류작이 되든 말든 상관없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어떻게 보면 뻔뻔한 태도지만 이상하게 끌린다. '메이즈 러너' 시리즈의 강점이다. 이는 2편인 '메이즈 러너: 스코치 트라이얼'(이하 '메이즈 러너2')에서도 계속된다.

전작 '메이즈 러너'는 미로라는 의문의 공간을 통해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영화 속 미로는 가정과 학교처럼 아이들을 보호하는 시스템에 대한 은유와도 같다. 세상은 아이들에게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라고 말하지만, 아이들은 끊임없이 그 울타리를 궁금해 하고 그 바깥을 상상한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 없이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아이들을 더 크나큰 위협과 마주한다. 그것이 세상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메이즈 러너: 스코치 트라이얼'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무작정 세상은 벗어나고 싶어 한 아이들은 폐허로 변해버린 도시를 허망하게 바라본다. 자신들을 제대로 보호해줄 또 다른 세상을 찾아 힘든 길을 떠나지만 그럴수록 아이들에게 남는 것은 몸과 마음의 상처뿐이다. 이제 아이들은 비로소 세상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 토마스(딜런 오브라이언)를 비롯한 친구들이 세상과의 싸움을 다짐하며 마무리되는 결말은 그래서 의미심장하다.

'메이즈 러너2'는 대단한 오락영화는 아니다. 하지만 주체적으로 성장해가는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진진하다. 이들의 성장담을 응원하고 싶다. 9월 16일 개봉. 12세 이상 관람가.

TV 하이라이트

첫사랑이 돌아왔지만…



◆ MBC '그녀는 예뻤다'

오후 10시

혜진(황정음)은 어린 시절 첫사랑이었던 성준(박서준)으로부터 한국에 돌아왔다며 만나자는 연락을 받는다. 그러나 어린 시절과 달리 역변한 자신의 외모 때문에 절친한 하라(고준희)에게 성준을 대신 만나달라고 부탁한다. 그 와중에 취직으로 전전긍긍하던 혜진은 극적으로 진성 매거진 관리부 인턴으로 합격한다.

/정리=장병호 기자

◆ tvN '수요미식회'

오후 9시40분

전주 지역 특집이다. 지오디(god)의 박준형과 배우 류현경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콩나물국밥과 전주비빔밥, 막걸리집 등 '먹방'으로 시작해 '먹방'으로 끝나는 전주 미식 기행이 펼쳐진다.



◆ KBS2 '어셈블리'

오후 10시

진상필(정재영)과 최인경(송윤아)은 배달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박춘성(박영규)과 백도현(장현성)은 배달수법 반대를 천명하며 여당 표 단속에 들어간다.



◆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

오후 11시15분

'감칠맛 나는 남자들', 일명 '감자' 특집이다. 가수 김장훈, 배우 정경호, 그룹 SG워너비 멤버 김용준, 개그맨 박휘순이 게스트로 출연한다. 네 사람은 각자 재미있는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는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6일 (수)

KBS1	KBS2	MBC	SBS	JTBC	MBN	tvN	FOODTV
05:00 KBS 뉴스 05:10 내 고향 스페셜 06:00 KBS 뉴스광장 07:50 인간극장 08:25 아침마당 0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55 별별가족 11:00 KBS네트워크특선 아름다운 충북 아름다운 사람들 11:55 바른말 고운말	06:00 2TV 아침 1부 07:00 2TV 아침 2부 08:00 KBS 아침 뉴스타임 09:00 TV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09:40 여유만만 10:40 지구촌 뉴스 11:00 부탁해요, 엄마 (재)	05:00 MBC 뉴스 05:10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스페셜 06:00 MBC 뉴스투데이 1부 06:25 MBC 뉴스투데이 2부 07:50 이브의 사랑 08:30 생방송 오늘 아침 09:30 MBC 생활뉴스 09:45 기분 좋은 날 11:00 내 딸, 금사월 (재)	05:00 SBS 5 뉴스 05:10 굿모닝 510-생활의 발견 06:00 모닝와이드 (1~3부) 08:30 어머님은 내 며느리 09:10 좋은아침 10:00 SBS 뉴스 10:30 SBS 생활경제 11:30 웃찾사 스페셜	06:00 신인류 식품관 (재) 07:00 이야기 보따리 (재) 07:30 JTBC NEWS 아침 & 09:10 내 나이가 어때서 (재) 10:25 냉장고를 부탁해 (재) 11:50 냉장고를 부탁해 팀이 뽑은 히든 싱어 시즌2 베스트 (재)	05:50 휴먼다큐 사노라면 (재) 06:50 굿모닝 MBN 08:00 아침엔 매일경제 09:20 뉴스파이터 10:30 전국네트워크뉴스 10:40 고수의 비법 황금알 (재) 11: 50 알토란 (재)	05:40 코미디 빅리그 꿀잼 에디션 (재) 06:00 삼시세끼 정선편 (재) 09:40 울지 않는 새 10:30 집밥 백선생 (재) 11:50 막돼먹은 영애씨 14 (재)	05:00 농업신화 06:00 귀농 다큐 '살어리랏다' (재) 06:30 나를 바꾸는 30분 (재) 07:00 찾아라! 팔도 맛지도 07:30 열정식당 (재) 08:00 최현석의 크레이지타임 08:30 그곳에 그집 09:00 푸드 헌터 (재) 09:30 알뜰 장보기 정보 (재) 10:00 세기의 기행 판소리의 맛과 멋 11:00 명물인생 (재)
12:00 KBS 뉴스 12 13:00 역사저널 그날 (재) 13: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14:00 2015 전국 대학 배구 15:55 튼튼생활체조 (재) 16:00 오늘의 경제 16:10 이웃집 찰스 (재) 17:00 KBS 뉴스 5 17:20 시사진단	13:00 다큐멘터리 3일 (재) 14:00 KBS 뉴스타임 14:10 세상의 모든 다큐 (재) 15:05 후토스-잃어버린 숲 (재) 15:30 자동공부책상 위키 (재) 16:00 TV 유치원 16:30 별별가족 (재) 16:35 동물의 세계 16:55 비타민 (재)	12:00 MBC 정오뉴스 12:20 위대한 조강지처 (재) 13:30 키즈 사이언스 5 (재) 14:05 리얼스토리 눈 (재) 14:30 똑?똑! 키즈스쿨 15:10 마법천자문 15:40 경제매거진 M 스페셜 16:25 딱 너 같은 딸 (재) 17:00 MBC 이브닝 뉴스	12:00 SBS 12뉴스 12:50 오!마이 베이비 (재) 14:00 영재발굴단 (재) 15:00 SBS 뉴스 15:10 SBS 이슈 인사이드 16:0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16:30 꾸러기 탐구생활 17:00 SBS 뉴스 퍼레이드 17:30 바이클론즈	13:10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재) 14:35 JTBC 뉴스 현장 15:50 4시 사건 반장 17:10 5시 정치부 회의	13:0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4:1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5:30 뉴스 BIG 5 16:50 뉴스&이슈	13:10 막돼먹은 영애씨 14 (재) 14:30 현장토크쇼 TAXI (재) 15:40 명단공개 (재) 16:40 삼시세끼 정선편 (재)	12:30 식신로드 시즌2 (재) 13:30 스타 뉴스 14:30 한국의 맛 시즌2 15:00 세기의 기행 판소리의 맛과 멋 16:00 필로교수의 쿠킹콘서트 한우예찬 (재) 17:00 활력 충전 건강이 보인다 (재) 17:30 알뜰 장보기 정보 (재)
18:00 6시 내고향 18: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19:00 KBS 뉴스 7 19:30 청년, 한반도의 미래를 꿈꾸다 20:25 가족을 지켜라 21:00 KBS 뉴스 9 22:00 생로병사의 비밀 23:00 KBS 뉴스라인 23:40 문화빅뱅 더 콘서트 24:50 동행 (재)	18:00 KBS 글로벌 24 18:30 2TV 저녁 19:50 다 잘될 거야 20:30 생생정보 20:55 글로벌 남편백서 내편, 남편 22:00 어셈블리 23:10 추적 60분 24:10 스포츠 하이라이트 24:35 세상의 모든 다큐	18:10 생방송 오늘 저녁 19:15 위대한 조강지처 19:55 MBC 뉴스데스크 20:55 딱 너 같은 딸 21:30 리얼스토리 눈 22:00 그녀는 예뻤다 23:15 라디오스타 24:35 MBC 뉴스 24 24:55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18:00 생방송 투데이 19:20 돌아온 황금복 20:00 SBS 8 뉴스 20:55 영재발굴단 22:00 용팔이 23:15 한밤의 TV연예 24:35 나이트라인	18:20 비정상회담 (재) 19:40 연금복권 520 19:55 JTBC 뉴스룸 21:40 유자식상팔자 23:00 연쇄쇼핑가족 24:25 냉장고를 부탁해 스페셜	18:10 MBN 뉴스와이드 19:40 MBN 뉴스 8 20:40 엄지의 제왕 (재) 21:50 나는 자연인이다 23:0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24:20 속풀이쇼 동치미 (재)	18:00 집밥 백선생 (재) 19:20 고성국의 빨간 의자 20:40 코미디 빅리그 (재) 21:40 수요미식회 23:00 비밀독서단 (재) 24:20 집밥 백선생 (재)	18:00 Mystery Dinners (재) 19:00 집밥의 여왕 20:30 최현석의 크레이지타임 (재) 21:00 Roadtrip With G.Garvin 21:30 Outrageous Food 22:00 Chopped Canada 23:00 오감도 (재) 24:00 식신로드 시즌2 (재)


맨체스터 시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럽 최고의 축구 강호 가린다

UEFA 챔스리그 오늘 개막
바르셀·맨유 등 우승컵 도전

유럽 최고의 축구 클럽을 가리는 2015-2016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가 16일 개막한다.

지난 시즌 우승팀 FC바르셀로나를 포함해 본선 무대에 오른 32개 팀은 4개 팀씩 8개조로 나뉘어 16일과 17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조별 1차 예선전을 치른다.

16일에는 B조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가 PSV 에인트호번(네덜란드)을 상대로 조별리그 원정 1차전을 갖는다.

맨유는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지 못했다. 플레이오프를 거쳐 2년 만에 본선에 오른 만큼 명문 구단으로서의 자존심 회복을 노린다. 다만 팀 간판인 웨인 루니(29)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 염려된다.

D조의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는 지난해 준우승팀 유벤투스(이탈리아)와 홈에서 조별리그 1차전을 치른다.

맨시티는 지난 시즌 16강에서 FC바르셀로나에 패해 16강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이번 시즌은 전력을 대폭 강화해 우승에 도전한다. 볼프스부르크(독일)의 공격형 미드필더 케빈 더 브라위너, 리버풀의 라힘 스털링, 발렌시아(스페인)의 니콜라스 오타멘디 등을 영입했다.

지난 시즌 4강에서 탈락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0)의 레알 마드리드(스페인)는 A조 샤흐타르 도네츠크(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우승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다.

리오넬 메시(28)가 이끄는 FC바르셀로나는 17일 AS로마(이탈리아)와 조별리그 원정 1차전을 치른다. 바르셀로나는 토트넘으로 이적한 손흥민의 친정팀인 레버쿠젠(독일), 바테 보리소프(벨라루스)와 E조에 속해 있다.

바르셀로나는 리오넬 메시, 루이스 수아레스(28), 네이마르(23)를 앞세워 2년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F조 아스널(잉글랜드)은 같은 시간 디나모자그레브(크로아티아)와 원정 경기를 갖는다. 리그 초반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G조 첼시(잉글랜드)는 마카비 텔아비브(이스라엘)와 홈 경기를 갖는다.

이틀 동안의 1차전이 끝나면 32개 팀은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에 걸쳐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른다. 각 조 상위 2개 팀이 16강 토너먼트에 진출한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배상문, PGA 최종전 진출하나?

17일 PO 3차전 BMW챔피언십 출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유일한 한국 선수 배상문(29·사진)이 최종전 투어 챔피언십으로 가는 길목에 섰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레이크 포리스트의 콘웨이 팜스 골프클럽(파71·7251야드)에서 플레이오프 3차전 BMW챔피언십이 열린다. 70명의 선수가 출전,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에 나갈 30명을 가린다.

배상문은 2014-2015시즌 두 차례의 플레이오프를 치르면서 페덱스컵 포인트 1391점을 쌓아 23위에 자리했다.

배상문은 이번 대회에서 10위 안에 든다면 투어 챔피언십에 무난히 나갈 수 있다. 그러나 10위 밖으로 밀린다면 다음주 대회를 장담할 수 없다.

지난주 닉 프라이스 단장 추천으로 프레지던츠컵 인터내셔널팀에 합류한 배상문은 이번 대회에서 단장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줘야 한다.

단장 추천이 아닌 인터내셔널팀 랭킹으로 프레지던츠컵에 출전하는 뉴질랜드 교포 대니 리(25)의 상승세도 기대할 만하다. 대니 리는 페덱스컵 랭킹 14위에 자리해 이변이 없는 한 투어 챔피언십 진출이 확정적이다. /장병호 기자



전인지 다시 국내 무대로

KDB대우증권 클래식 출전
2연패·상금 1위 도전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아쉽게 컷 탈락한 전인지(21·하이트진로·사진)가 다시 국내 무대로 돌아온다.

전인지는 오는 18일부터 강원도 춘천시 엘리시안 강촌CC(파72·6450야드)에서 열리는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KDB대우증권 클래식(총상금 6억원·우승상금 1억2000만원)에서 시즌 5승과 함께 대회 2연패에 도전한다.

전인지는 지난주 에비앙 챔피언십 출전을 위해 KLPGA 투어 최대 상금이 걸려 있는 한화금융클래식과 메이저 대회인 KLPGA 챔피언십을 건너뛰었다. 3주 만에 다시 돌아온 국내 무대다. 전인지는 KDB대우증권 클래식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타이틀 방어와 함께 상금 1위 굳히기에 들어간다. 현재 시즌 4승과 함께 상금 순위에서도 7억5800만원으로 1위를 달리고 있다.

이정민(23·비씨카드), 고진영(20·넵스), 조윤지(24·하이원리조트) 등 상금 순위 상위권자들도 대거 출전한다. KLPGA 흥행을 몰고 다니는 이들이 모두 출전하는 것은 지난 7월 하이트진로 챔피언십 이후 8주 만이다.

추신수, 안타 행진 마감

3타수 무안타 기록
텍사스, 휴스턴에 승



미국 프로야구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33·사진)가 14게임 연속 안타 행진을 마감했다.

추신수는 14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벌어진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경기에 서2번우익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3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시즌 타율은 0.260 돌파 문턱에서 0.257(482타수 124안타)로 내려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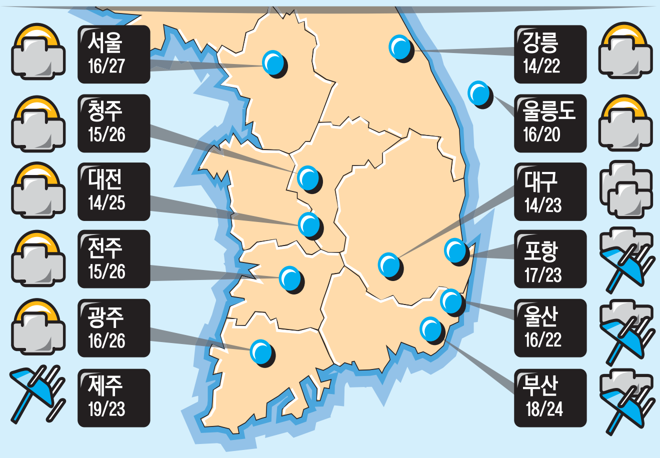
추신수는 1회 총알 같은 타구를 날렸으나 상대 유격수 카를로스 코레아의 호수비에 막혀 아쉽게 아웃됐다. 3회에는 오른쪽 팔뚝에 맞고 1루로 걸어 나갔다. 13경기 연속 출루 기록이다. 5회와 8회에는 각각 3루수 뜬공과 3루수 땅볼로 물러났다.

텍사스는 3-3으로 팽팽히 맞선 8회 터진 프린스 필더의 중월 투런포를 앞세워 5-3으로 이겼다. 이날 승리로 서부지구 2위인 텍사스는 선두 휴스턴을 0.5경기 차로 추격했다.

날씨

9/16 수 일출시각 06:14 일몰시각 18:40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자외선지수 |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8		2	7		6	1		
7			5		8	2		
			9					8
4						9	2	
9		8				3		5
	5	3						4
2					3			
		6	4		9			2
		4	2		7	5		9

4	7			1	2			
		9	4				1	2
		8				4		
5		1		3			8	
7		2				9		6
	8			6		3		1
		3				5		
8	2				4	1		
			3	5			2	9

스도쿠 정답

8	9	2	7	4	6	1	5	3
7	4	1	5	3	8	2	9	6
6	3	5	9	2	1	4	7	8
4	6	7	3	8	5	9	2	1
9	2	8	1	7	4	3	6	5
1	5	3	6	9	2	7	8	4
2	1	9	8	5	3	6	4	7
5	7	6	4	1	9	8	3	2
3	8	4	2	6	7	5	1	9

4	7	6	5	1	2	8	9	3
3	5	9	4	8	6	7	1	2
2	1	8	9	7	3	4	6	5
5	6	1	7	3	9	2	8	4
7	3	2	8	4	1	9	5	6
9	8	4	2	6	5	3	7	1
6	9	3	1	2	7	5	4	8
8	2	5	6	9	4	1	3	7
1	4	7	3	5	8	6	2	9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생활 영어

I smell a rat

A: They let another person go today.
B: You've got to be kidding me! Your new manager is so severe!
A: You're telling me! He fired this one for not being "cheery" enough.
B: Dang.
A: Yeah. And this person is one of cheeriest ppl I know. Something is not right.
B: You think there is something else going on?
A: Well I heard that he used to manage another cafe in town that went out of business.
B: Oh?
A: Apparently he was really close with the staff there. Like family.
B: Uh-huh···
A: Well most of them are still looking for jobs··· And our place just lost a bunch of staff!
B: I smell a rat!

낌새가 수상한데

A: 회사에서 오늘 한 명 더 해고했어.
B: 설마 그럴 수가! 너네 신임 점장 넘 심하다!
A: 내 말이! 그 사람을 해고시킨 건 충분히 "명랑하지" 않아서 그랬대
B: 망할.
A: 응 거기다. 그 사람은 내가 아는 한 젤 명랑한 사람이야. 뭔가 이상해.
B: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 같니?
A: 음, 그 사람이 전에 시내에 다른 카페를 운영했는데, 그게 파산했대.
B: 오?
A: 그 사람은 거기 직원들하고 정말 가까웠대. 가족처럼.
B: 어~ 오우···
A: 그 사람들 대부분 아직 일자릴 찾고 있는데··· 우리 카페는 방금 직원을 잔뜩 해고했고!
B: 뭔가 낌새가 수상해.

* ppl: people의 약자, 사람들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조언 부탁드려요
참고 기다리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세요

나도 꽃 여자 80년
남자 79년

Q 안녕하세요. 다른 분들에게 해주시는 상담인데도 제가 읽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한 지 몇 달 안 되는 신혼인데 신랑이 가끔 너무 밉고 싫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 욕심으로 인해 미움이 발생한 것 같아요.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 제가 특별히 해야 할 일들과 마음가짐,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마음가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A 독자분들께 늘 감사드리며 사주 속으로는 비공개가 아닌 오픈된 지면임을 숙지해주십시오.

예전에는 한 개인의 사주를 살펴 볼 때 관성(官星)의 글자를 중심으로 귀천 여부를 가렸습니다. 즉 벼슬을 할 수 있는 팔자가 귀격이고 관직에 오르면 자연 재물은 따른다는 논리입니다.

현대에서는 관성보다 직접적인 부를 의미하는 재성(財星)을 중시합니다. 벼슬을 하지 않아도 부자이면 대접 받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위도 높고 재산이 많이 있으면 이것을 재관쌍미(財官雙美)라 하여 예나 지금이나 반기는 사주 유형이지요.

재성은 이것이 곧 재물을 암시하는 글자인 동시에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재성의 글자가 힘이 있고 아름답게 구성되어 있으면 부친에게 물려받는 유산이 적지 않고 풍요로운 삶의 원천이 됩니다.

사주에서 명예를 의미하는 글자는 인성(印星)입니다. 이는 성장기에 학업을 수행하는 능력이나 학업적인 성취도를 가늠하는 요소로 작용하며 인성은 어머니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지극한 정성과 배려는 곧 학업적인 성취와 직결됩니다.

표창장 임명장에서부터 매매·거래상의 문서로 인한 재물의 이득은 모두 인성의 좋은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의 재산이나 지위 명예는 일순간에 소멸될 수 있는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같은 여건에서 누가 더 부자인지 누가 더 부자가 될 것 인지 따져보는 방법은 바로 부모에게 어떤 자식인지 살펴보면 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결혼하면 인성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인 인성은 기다림이며 가화만사성(家和萬事星)은 사주 학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9월 16일 (음 8월 4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쥐 — **48년생** 집안에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60년생** 남에게 베풀면 언젠가 본인에게 돌아옵니다. **72년생** 소수의 의견도 존중하세요. **84년생**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주도록 노력하세요.

소 — **49년생** 유비무환이란 말을 명심하도록 하세요. **61년생** 매일 매일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73년생** 사회적으로 이익을 남길 생각을 하세요. **85년생** 주변인들을 너무 믿는 것은 금물입니다.

호랑이 — **50년생** 성실한 자세로 나아가면 더 큰 이득이 보입니다. **62년생** 금전운이 불리합니다. **74년생** 지금까지의 일을 고수하면 운이 따를 것입니다. **86년생** 오늘은 근신할 때 입니다.

토끼 — **51년생** 이성과의 갈등이 우려됩니다. **63년생** 산 넘어 또 산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군요. **75년생** 괴롭지만 고통을 내색하지 마세요. **87년생** 더욱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용 — **52년생** 못했던 공부에 집중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64년생** 계획성이 모자라 위험에 빠집니다. **76년생** 신중히 나아가야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88년생**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뱀 — **53년생** 즉각적인 실천이 필수적인 시기입니다. **65년생** 현금은 저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77년생** 깊이 생각 후 상대를 따른다면 즐거운 날이 될 것입니다. **89년생** 고집을 버려야 하는 일이 길합니다.

말 — **54년생** 귀하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운아입니다. **66년생** 모든 일이 잘 풀립니다. **78년생** 용기를 내어 추진하세요. **90년생** 약간의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경 쓰지 마세요.

양 — **55년생** 오늘 귀하의 행운의 숫자는 8번입니다. **67년생** 용기를 내세요. **79년생** 모든 일에 준비성이 필요합니다. **91년생** 다음 달에 아주 반가운 손님이 귀하를 방문할 것입니다.

원숭이 — **56년생** 중심을 잡고 일에 집중하세요. **68년생**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80년생** 해외여행을 떠날 좋은 시기입니다. **92년생** 말 조심하고 건강에 신경 쓰세요.

닭 — **57년생** 사람은 때로는 낭만적인 면이 있어야 합니다. **69년생** 이성에게 배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81년생**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93년생**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매우 심합니다.

개 — **58년생** 지출을 좀 줄이세요. **70년생** 패배를 인정하고 반성하세요. **82년생** 많은 금전을 만지게 됩니다. **94년생** 집 매매나 큰 금액의 거래를 하면 매우 길합니다.

돼지 — **59년생** 동북방이 길방입니다. **71년생** 유흥에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83년생** 어디를 가도 반기는 이가 없습니다. **95년생** 공익을 위해 일을 하면 좋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후 문화적 재도약 계기 만들어져야



이화순
문화평론가
평창비엔날레 홍보위원장

'평창비엔날레'와 '평창동계올림픽'. '평창'이란 공통분모를 가진 이 둘은 무슨 관계일까?

올여름 내게 '2015평창비엔날레 홍보위원장'이라는 명함을 받은 이들은 하나 같이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중에는 "아휴 수고 많으십니다. 2018년까지 계속 수고 많으시겠네요. 평창올림픽이 무척 힘들다는데…" 이런 인사를 건네는 분들도 적지 않았다.

이쯤 되면 어쩔 수 없이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2015평창비엔날레'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강원도는 2년여전 동계올림픽 유치를 축하하고 우리의 문화예술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의지로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치르겠다"고 공표했다. 그리고 두달만에 2013평창비엔날레가 탄생했다. 급조된 탓에 첫회 2013평창비엔날레는 '졸속 행사'라는 비난을 면치 못했다.

하지만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다. 비록 1회때의 절반 예산(12억5000만원)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작가들을 초대하고 콘텐츠를 준비했다. '평창비엔날레' 살려내기에 뜻을 모은 듯 스탭과 작가들도 '의리'로 뭉쳤다.

하지만 열악한 현실은 어쩔 수 없었다. 번듯한 전시장 하나 없는 것은 평창의 약점을 극복하고 평창 알펜시아의 스키하우스와 컨벤션센터, 용평리조트 드래곤플라자에 가벽을 치고 국내외 유명 작가의 작품을 전시했다. 목장의 일부도 전시장으로 끌어왔고 터미널문화공간도 활용했다. 평창 알펜시아에서 열린 주제 전시 외에도 특별전 '포스트 박수근'과 'DMZ별곡'을 용평리조트에 이어 강원도 여러 지역에서 순회 전시하며 '찾아가는 비엔날레'로 만들었다. 12월22일까지 총180명의 작가 작품 315점이 총 215일간 17개 소에서 소개되고 있다.

올해 평창비엔날레 홍보 마케팅은 평창 알펜시아에서 비슷한 시기에 열리는 아시아 최고의 여름음악축제 '제12회 대관령국제음악제'와 함께 낮에는 전시, 밤에는 음악이 있는 행복한 '한여름의 문화예술 축제의 현장'으로 이미지 메이킹하는 것이었다. 당연히 전국에서 휴가차 모여든 문화예술애호가와 가족들, 사회적 리더들의 관심을 받았다.

필자는 주 임무인 홍보 이외에도 여러 곳의 협찬사와 홍보대사(중견탤런트 김영호) 찾기, 미술계 최초의 '모바일 카드 뉴스' 제작 등을 함께 했다. 예산부족으로 어렵게 태어난 평창비엔날레가 2회를 끝으로 사라지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였다.

이런 노력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나더라도 이후 평창비엔날레가 끗끗한 생명력으로 꽃피어 강원도는 물론, 세계 작가들의 힐링아트 본고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비전을 공유해 가능했다. '문화'는 서서히 크는 나무다. 어린 나무가 큰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게 되면 그 숲을 찾는 이들은 시원하게 드리워진 그늘에서 심신을 치유받고 예술 문화 샤워를 즐길 수 있다.

만약 평창비엔날레가 정치와 행정의 실적용 비엔날레로 추락해 올림픽이 끝난 후 곧바로 없어진다면, 그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된 올림픽은 도시국가끼리 전쟁도 멈추고 함께 어울렸던 문화축제였다. 이번 평창비엔날레도 문화축제같은 올림픽을 지향한 고대의 아름다운 올림픽 정신이 살아있는 전주곡이기를 바란다. 평창올림픽 이후 평창과 강원도의 존재 가치를 이어가고 발전시키기 위한 문화적 재도약의 계기가 만들어졌으면 한다.

社說

야당의 4분5열

야당이 자중지란에 빠진 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정감사라는 국가대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야당은 당내싸움에 몰두하고 있다. 현재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지난달 혁신안이 제시된 이후 친노와 비노 사이에 논란이 벌어진데 이어 문재인 대표가 지난 9일 재신임 투표를 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갈등이 더욱 증폭됐다.

비노세력이 조기전당대회를 요구하는 등 문재인 대표를 비판했고, 이종걸 대표는 문대표의 선언을 유신시대와 비유하기도 했다. 조용히 있던 안철수 의원도 문재인 대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15일 문 대표를 향해 재신임 투표를 취소하고 중앙위 개최를 연기하라고 요구했다. 문 대표가 14일 공개 편지를 통해 중앙위 연기·재신임투표 철회를 거부하자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처럼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당내외 여러 인사들이 제각기 한마디씩 하면서 당은 혼돈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야권의 혼돈은 당내에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호남에서는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 DJ측 '구 민주계'를 중심으로 신당 추진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박준영 전 전남도지사도 신당창당을 선언했다.

야당이 4분5열의 양상을 보이는 반면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혁을 비롯해 굵직한 국정현안을 힘있게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 야당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끌려가기만 한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도 모두 묻히고 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의 마약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야당은 이슈로 삼는데 실패했다. 이래 가지고서는 야당이 제 구실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여당이 오만해진다. 결국은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온다.

민주국가의 야당에서 활발하게 의견이 개진되고 토론이 벌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는 하다. 그렇지만 그것도 때가 있는 것이다. 힘을 모아야 할 시기에는 모두가 자제하고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야당은 끝없이 갑론을박만 거듭하고 있다. 야당의 4분5열은 언제나 끝날 것인가.

국감 때 부처들도 자료 숨기지 말자



기자 수첩
유선준
<사회부>

올해도 어김없이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왔다. 정부부처마다 국감을 준비하느라 분주히 움직이는 모양새다.

국회의원들도 국감이 열리기 몇달 전부터 본인들이 소속된 부처에 국감자료를 요청하는 등 부처 못지 않게 국감을 준비해왔다.

기자가 몸담고 있는 법조도 이 같은 노력으로 현재 국감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매년 벌어지는 여야 국감 공방만큼 끊임없이 이어지는 볼멘소리가 있다.

요청한 국감자료를 부처가 주지 않고 숨겨 제대로 국감을 하지 못하겠다는 것. 올해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법조기자들에게 이 같은 하소연을 또 하고 있다.

법사위 A의원 보좌관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몇달 전 재경 법원에 요청한 국감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측의 요청으로 법원 측에서 자료를 만들겠다고 밝혔는데, 국감이 시작된 지금까지 자료제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B의원 비서관도 "검사들의 지인들이 한 재경 검찰지청 사무직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관련 직원들의 출신성분을 파악하기 위해 인적자료를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는데 거부당했다"며 "비리가 있을 가능성이 존재해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데,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관련 자료를 얻지 못했다"고 분개했다.

의원들 사이에서 매년 이 같은 하소연이 왜 터져 나오는지 진단할 필요가 있다. 부처 비리를 파헤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자료를 못받아 국민의 심판대에 올려놓지 못한 것만큼 무능한 것도 없다.

물론 국감이라고 해서 수사기록 공개가 수사 방해로 이어지거나 사생활 침해로 개개인이 피해를 받으면 안된다. 하지만 인적사항을 지우고 자료를 제출하는 등 얼마든지 부처와 의원 사이에 절충안은 존재한다.

국감장은 여야 싸움판이거나 부처 자료를 숨겨 '눈가리고 아웅'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 앞에서 잘못된 걸 반성하는 자리다. 부처들도 관련 자료를 숨김 없이 제출해서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한 말이다.

감기 제대로 치료해야 피부질환도 완치

생활건강

가을을 맞아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고 한 낮에는 기온이 높아 일교차가 심한 날이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환절기에는 감기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감기로 인해 피부질환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치료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한달수 한의원의 한 원장은 "흔히 말하는 감기는 외감육기라고 부르는데 이는 외(外)는 내 몸(사람 인체) 밖에서 얻은 질병 등을 말한다. 육기는 풍한서습조화 즉 기후변화이니 환경이다. 풍은 바람, 한은 찬 기운, 서는 더운 기운, 습은 눅눅한 기운, 화는 뜨거운 화기, 조는 건조한 곳에서 오래 생활한 것을 말하며 이 안에는 세균, 곰팡이, 벌레물린 것, 바이러스 등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한 원장은 "어떤 피부질환이든지 원인제거가 안돼 증상이 없어지지 않으면서 피부재생까지 잘 안되고 피부가 변형되거나 흉터가 심해지는 상태에서 피부치료(한약치료, 양약치료, 민간요법)도 받고, 식이요법도 하고, 보습 등 피부 관리를 하다가 증상이 좋아지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악화가 되기도 하고,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내 몸에 생긴 열의 원인으로는 1.發汗而不發汗 邪熱入裏 逼血妄行 2.傷寒下早 熱毒乘虛入胃 3.傷寒下遲 熱留胃中 4.多服熱藥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생긴 열이 몸 안에 잠복한 상태에서 외감육기에 다시 상해서 증상은 더욱 복잡해진다. 여기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적인(봄, 여름은 기운이 상승하고 가을, 겨울은 기운이 하강한다) 요인에 음식 섭취와 그 사람의 체질적인 허실에 따라서 나타나는 피부질환이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음, 양, 기, 혈의 과함과 부족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최치선 기자 chisunti@

◇도움글: 한달수한의원 한달수 원장

인사

◇KBS ▷TV본부 드라마국장 정성효
◇뉴데일리경제 ▷경제부 금융팀장 권대희
◇국무조정실 △과장급 승진▷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 이용형
◇행정자치부 △국장급 전보▷지방세제정책관 고위공무원 김장주 △과장급 전보 ▷민원제도과장 서기관 서정아 ▷정부통합전산센터 사이버안전과장 기술서기관 신민필
◇경희대학교▷서울 중앙도서관장 겸 국제 중앙도서관장 김한원 ▷국제 사무처장 겸 재무처장 김동호 ▷Space21건설사업단장 겸 서울 부총장 겸 후마니타스칼리지 대학장 직무대행 한균태 ▷교육사업추진단장 겸 서울 교수학습지원센터장 겸 서울 교무처장 이동수 ▷국제 교수학습지원센터장 겸 국제 교무처장 박광헌 ▷무용학부장 김화례

부고

▲이영하(전 공군참모차장·전 레바논 대사)씨 모친상 = 14일 오전 6시, 서울적십자병원 장례식장 301~302호, 발인 16일 오전 6시 ☎ (02)2002-8477~8
▲박원갑씨 별세, 형우(신우식품 대표이사)·형숙(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임상병리사)씨 부친상 = 14일 오후 1시, 인천 세림병원 장례식장 6호, 발인 16일 오전 6시. ☎ 032-508-1346
▲김금세씨 별세, 상이(청주시 기업지원과 주무관)씨 부친상 = 14일 오전 10시 50분, 진천장례식장 202호, 발인 16일 오전 8시. ☎ 043-532-4404


71년 전통의 대한민국 정통 제례주 백화수복
백화수복 전속모델 김수미
白花
고급청주
백화수복
白花壽福
대한민국 대표청주
SINCE 1945
집집마다 차례상은 달라도
추석에는 백화수복
가장 오랫동안 사랑 받아온 대한민국 정통 제례주 백화수복
집집마다 차례상은 달라도, 명절에는 역시 백화수복입니다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